

< 淑 香 傳 > 연구

成 賢 慶

- I. 머리말
- II. 적강형 소설과 탐색형 소설로서의 <숙향전>
- III. 적강형·탐색형, 복합소설로서의 <숙향전>
- IV. 보은형 소설·변신소설로서의 <숙향전>
- V. 사상과 의미
- VI. 맺음말

I. 머리말

<숙향전>은 우리 고전 소설들 가운데 한 白眉로서 아주 이른 시기에 지어진 작품이다. 이 소설만큼 천상계와 지상계 혹은 선계와 속계가 지척의 거리에 있는 작품, 하나로 통합되어 있는 작품도 드물다. 지상계와 지하계 또는 물세계와 불세계도 마찬가지다. 신선인 마고할미(採藥神)·후토부인(地神)·화덕진군(火神)·용왕(水神)등은 仙俗을 자유자재로 왕래한다. 또 주인공 김숙향이나 이선 역시 각각 선녀와 선관의 變身으로서 선속의 경계를 비교적 자유롭게 넘나든다. 이들은 兩界를 때로는 꿈을 통해서, 또 때로는 실제 현실속에서 쉽사리 오가고 있다. 숙향은 실제로 명사계와 용궁계를 출입하고 있고, 선은 仙藥探索

여행을 통해서 해중세계(용궁 포함) 및 봉래산·천태산 등의 仙境을 실제로 답사하고 있다. 숙향의 부모나 여느 신선들도 마찬가지다.¹⁾ 뿐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날짐승과 길짐승마저도 선속의 경계를 별 장애없이 예사로 넘나들고 있다.

작자나 독자의 상상력이 이만큼 너른 공간에 걸쳐 폭넓게 미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폭(넓이) 만이 아니다. 그 깊이 혹은 높이도 대단하다. 상상력이 천상계와 지상계, 지하계와 수중계의 全領域·全宇宙에 미치고 있다. 따라서 <숙향전>은 神聖性이 가장 강한 소설, 곧 가장 원초적인 神聖小說²⁾에 해당하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가 이 사실 하나만 가지고 이 작품이 이른 시기에 지어진 고소설이라고 하는 것은 아니다.

이 소설의 주인공은 이미 18세기 중엽(1754; 영조30년)의 문헌 내지 작품에 실려 소개되고 있다. 晚華翁 柳振漢은 《만화집》이란 저술을 남기고 있는데, 이 속에 이 작품 주인공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다.³⁾ 한

1) “잇썩난 춘순월 망간니라. 김전 부처 망월누의 올라 달을 귀경호더니 문득 하날 노셔 흰 꽃 한가지 중시 압히 찢러지거날 주세 보니 이화도 아니요 민화도 아니로 되 말근 향니 진동호거날”(5:6-9)

“괴죽 수월 초파일의 괴이호 향니 진동호며 오식 구름이 집을 두로거날 일가 상호 다 경동호더니 밤중은 호여 고운 계집 아히 두리 옥동의 불을 들고 드려와 김전 다려 일너 왈 ‘이제 부인니 오시니 그 티 빗비 나와 집안을 소해하라.’ 호고 장시 방으로 드려가거날 ...(중략)... 김전나 크게 의심호여 가만니 총통으로 엿보니 장시 발서 익기를 나흔지라. 그 계집이 향물의 익기를 잊쳐 부인 것되 뉘이고 밧그로 나가거날”(6:6-7:3)(제6면 제6행-제7면 제3행을 뜻함; 이하도 같음)

이상의 두 인용문은 김전 부부가 실제 현실 속에서 겪은 신비체험을 기술한 것이다. 이렇듯 김전 부부는 이 속계에서 선계의 꽃이나 선녀와 직접 접촉하고 있다. 또 선녀는 자유로이 선속의 양계를 넘나들고 있음을 본다. 이 대목들은 결코 꿈으로 묘사·처리되어 있지 않다.

2) 이것은 李相澤의 용어인데, 그는 ‘전형적인 신성소설 작품’의 한 예로 이 <숙향전>을 들었다. 이상택, 古代 小說의 世俗化過程 試論, 《古典文學研究》1(한국 고전 문학연구회, 1971) p.63 참조.

3) 유진한이 지은 <春香歌>에 “南原冊房李都令 初見春香絶對美, 三郎愛物比君誰 二

편 이 <숙향전>은 18세기 말엽(1794; 정조18년)에 對馬島의 譯官 小田幾五郎(號, 山田士雲)이 엮은 <상서기문>⁴⁾에도 소개되고 있고, 18세기 말엽 내지 19세기 전엽 조선조의 中人 계층의 학자인 趙秀三(1762-1849; 영조38-현종15년)이 지은 <추재집>⁵⁾에도 등장하고 있다. 이로써 볼 때 <숙향전>은 <춘향전>보다 먼저 지어져 18세기 중엽 무렵이면 아주 널리 읽혔던 작품⁶⁾으로 여겨진다.

또한 이 <숙향전>의 내용은 판소리체 소설인 <춘향전>, <심청전>, <홍부전>, <배비장전> 및 가면극 <봉산탈춤>의 대사 등에도 소재로 등장하고, 심지어 현대시인 김소월의 명주 딸기⁷⁾에도 소재로 등장하는

仙瑤池淑香是”란 구절이 들어 있다. -<晩華集>

4) 일본 天理大 圖書館 소장본, 下券 雜開條.

“朝鮮小說 一張雲傳 九雲夢 崔賢傳 張朴傳 林將軍忠烈傳 蘇大成傳 蘇雲傳 崔忠傳 의 泗氏傳 淑香傳 玉橋서 李自慶傳 類는 唐의 일을 적고 諺文으로 읽기 쉽도록 했다고 한다. 三國志 같은 류도 연문으로 쓴 冊이 있다고 한다.”-필자가 한자와 일본어로 되어 있는 원문을 우리말로 번역해 실었음.

金東旭, <春香傳 研究>(연세대, 1965) p.382에도 이 <象脩記聞>의 내용이 소개되어 있으나, 원문대로 되어 있지 않다. <象脩記聞>과 그 저자에 관해서는 小倉進平, <朝鮮語學史>(刀江書院, 1964 수정 증보판) p.44 참조.

5) “傳奇叟居東門外 口誦諺課稗說 如淑香·蘇大成·沈清·薛仁貴等 傳奇也.”-<秋齋集> 傳奇叟 條.

이 ‘傳奇叟’조의 내용은 필자가 이미 ‘劉忠烈傳’檢討, <古典文學研究>2 (한국 고전문학연구회, 1974)에서 소개한 바 있다.

6) 李渭應은 九州 苗代川에서 발원된 李胤遺民 沈氏家 世傳本 淑香傳 研究, <부산대 논문집>7 (부산대, 1966) pp.1-33에서 이 작품을 17세기 것으로 추정하였는데, 曹喜雄은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18세기 것으로 추정하였다.

曹喜雄, 國文本 古典小說 形成年代 考究, <국민대 논문집>12 (국민대, 1978) pp.29-31.

필자는 이 작품을 17세기 후엽 혹은 말엽(숙종 연간)쯤 창작된 것으로 추정한다. 이에 대해서는 본문, 특히 주63)참조.

7) “니도령 말이”(중략)“그리면 숙낭직냐?” 이화정이 아니여든 숙낭직가 웬말이요?”(南原古詞)

“남익의 위부인, 청침산 무구선녀, 오지의 서왕모, 낙포의 는화선, 은하수의 채련선, 낙양의 숭낭자”(중략)“차리로 연결하야 옥안전 드러갈 제”(東國 심청전이라; 박순호 본)

바, 우리는 이로써 이 소설이 얼마나 많은 조선인들에게 애독되었던가를 충분히 짐작할 수 있겠다.⁸⁾

과연 <숙향전>은 심오한 깊이와 무한한 높이 및 광활한 넓이를 지닌 古典 中の 古典에 속하는 명작이면서 흥미진진한 수작이요, 동시에 이른 시기에 창작된 걸작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작품에 관한 연구는 비교적 부진한 형편이다. 아직 그 이본이나 작품의 구조와 의미 구명 등이 제대로 안 된 상태라 하겠다. 우리는 미흡하나마 그래도 이본을 고찰한 이로 이위웅·구충회·이상구 등을 들 수 있고, 작품의 성격이나 사상 혹은 구조와 의미 등을 고구한 이로는 장홍재·나도창·정종대·김용환·서연희·이상구·조용호 등을 들 수 있다.⁹⁾

“반야산 바위틈에 숙낭자의 설음, 적자 한들 어느 책에 다 적으며”(경판 25장본 흥부전)

“(배비장이)옛날 춘향의 낭군 이도령이 춘향 생각하며 글 읽듯 하겠다. 삼국지·수호지·구운몽·서유기, 책 제목만 보고 淑香傳 반중등 딱 짓히고 ‘숙향아, 불상하다.’”(새창서관본 배비장전)

둘째 먹중, 먹중들, 취발이 등이 부르는 불림이 바로 “낙양동촌 이화정”인데, 이곳은 바로 마고할미와 숙향이 거처하던 공간이다.(봉산탈춤)

“노던 벌에 오는 비는 숙낭자의 눈물이라,” - 巷傳 愛唱 명주말기, 《金素月; 한국 현대시 문학 대계》(지식산업사, 1983)

8) 한 학자가 이 <숙향전>의 애독 정도를 조사하여 보고한 논문에 의하면 조사 대상자 중 63% 이상이 이 작품을 읽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전 소설론에서 언급되는 작품 중 10편을 임의로 선택하여 一讀與否를 살핀 결과, 숙향전은 19명 중 12명이 읽은 것으로 나타났다.”

李源周, 古典小說의 讀者와 性向, 《한국학 논문집》2:3 (계명대, 1975)

9) 이위웅, 주6)의 논문

구충회, 淑香傳 異本考(고려대 교육학 석사논문, 1983)

이상구, 淑香傳 국문본의 특성과 계통, 《민족문화연구》, (고려대 민족 문화연구소, 1993) pp.219-296

맨 처음 본격적으로 이본고를 한 이는 구충회인데, 그 역시 이위웅처럼 沈氏本(九州本)을 最古本으로 삼고, 이것을 대본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 대본은 전반부만 있고 후반부가 없어 참조본으로밖에 삼을 수가 없다. 한편 이상구의 논문은 심씨본·이대본·정신문화연구원 107장본·정판본(파리 동양어학교 소장본), 이 4대본을 주대상으로 하여 정문연 107장본이 선본이란 결론을 내리고 있

필자는 이 <숙향전>을 '李朝 謫降型小說 研究'¹⁰⁾ 내지 <韓國小說의 構造와 實相>에서 原型의인 적강형 소설로 지목하고 개략적으로 살핀 이래 3차례(1989·1991·1993년)에 걸쳐 대학원(박사과정)수업시간에 학생들과 함께 집중적으로 고찰한 바 있다. 물론 세미나에 참여한 학생들은 해마다 바뀌었다.¹¹⁾ 우리는 이 때 이 본고를 통해서 심씨본

다.

장흥재, 숙향전에 나타난 거북의 보은사상, <국어국문학>55-57합집(국어국문학회, 1972)

——, 숙향전, <고전소설연구> (황패강 교수 정년퇴임기념논문총 간행위; 일지사, 1993)

김용환, 숙향전의 도교사상적 고찰 (한양대 석사논문, 1983)

나도창, 숙향전 연구 (충전대 석사논문, 1984)

정종대, 숙향전고, <국어교육>59·60합집 (한국 국어교육연구회, 1987)

서연희, 숙향전의 서사구조와 의미, <서강어문>5 (서강어문학회, 1986)

이상구, 숙향전의 현실적 성격, <고전문학연구>6 (한국 고전문학연구회, 1991)

조용호, 숙향전의 구조와 의미, <고전문학연구>7 (한국 고전문학연구회, 1992)

이 중 본격적으로 <숙향전>의 구조와 의미를 분석·구명한 것은 맨 뒤쪽 3편- 서연희·이상구·조용호의 논문-인데, 이 중 이상구의 것이 가장 아쉽게 느껴진다. 환상의 세계·허구의 세계를 외면했기 때문이다.

10) 1980년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이 논문은 '적강소설 연구'란 제목으로 필자의 저서인 <韓國小說의 構造와 實相>(영남대학교 출판부, 1981)에 수록되었다. 그런데 저 '李朝'란 관형어는 오늘날에는 걸맞지 않다. '朝鮮朝'로 바꾸어 써야 옳을 것이다.

성원경, 숙향전, <韓國小說의 構造와 實相> pp.99-102 참조.

11) 우리는 이 때 N.Frye의 <The Secular Scripture>(Harvard Univ. Press, 1976)를 함께 一讀하고 난 뒤, 심씨본·이대본·정문연107장본·하바드대본 및 파리 중앙대학교 소장 경판본을 대상으로 대충 이본고를 하고, 이 대본을 대상으로 하여 적강형 소설·탐색형 소설·보은형 소설로서의 <숙향전>의 성격을 검토하되, 프라이의 <The Secular Scripture>의 이론을 토대로 검토하는 방법을 택하였다.

조용호의 '숙향전의 구조와 의미'(1991)란 논문은 1991년 세미나에서 다루어진 일부를 정리한 것-학기말 보고서로 제출된 것-으로 여기에는 필자 및 다른 학생들의 견해가 상당 부분 수용되어 있다. 그러나 <바리데기>와의 상관관계를 다룬 후반부만은 조용호의 독창적인 것인데, 문제점이 전반부 보다는 이 후반부에 더 많다.

(구주본)은 비록 그 고형성은 인정되나, 후반부가 없는 미완본인 바 전반적 연구대상은 될 수 없음을 알아내고, 또 파리의 경판본은 꽤 많은 부분이 축약되고 변질된 대본으로서 이것을 先本 및 善本으로 볼 수 없음을 밝혀냈다. 한편 이대본 정문연107장본 하바드대본이 善本에 해당하는데, 이것들이 저마다 長處와 함께 결함처도 지니고 있음을 밝혀냈다.

본고는 이대본을 주대본으로 삼아 필자의 1980년 학위논문 및 프라이의 《世俗經典》(약칭《俗經》: 副題, 소설의 구조에 관한 한 연구)의 이론을 토대로 <淑香傳> 연구를 심화 확장한 것으로서, 그 동안 세미나를 통해 가다듬은 생각들을 정리한 것이다. 우리 학생들의 도움이 컸음은 물론이다.¹²⁾

이대본은 물론 흠을 꽤 지니고 있다. 가령 開言草가 가련초, 開眼珠나 開眼酒가 계란주, 還魂酒는 향효주, 回魂丹은 회환단, 關耳茸(벽이용)은 별이용, 굴은 쌀, 金蟾은 금성, 형주자수는 형주좌수, 표진강은 포진강, 왕죽진이 왕죽균, “인간의 너쳐서도”는 “인간의 너쳐 서로”로 오기되어 있는가 하면, 脫字와 脫句 또한 꽤 많다. 그러나 이 오류들이 책이 아주 오랜 세월을 걸쳐 붓에서 붓으로 전승되는 과정에서 생겨난 결과로서, 오히려 장점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겠다. 사실 이 텍스트는 가장 고형의 필사본인 沈氏本과 제일 가까운 - 전반부만 놓고 볼 때 가장 유사한 - 본인 바, 여기에서는 이 이대본을 중심으로 살펴면서 정문연107장본이나 하바드대본 등은 단지 참고본으로만 사용¹³⁾

하바드대본은 필자가 1988년 재미 기간에 복사해 온 것이다.

12) 1993년 우리 대학원생들이 학기말 보고서로 제출한 논문은 뒤에 따로 묶어 실기로 한다. 이 논문들이 서로 비슷한 주장을 펴기도 하고 다른 주장을 펴기도 하는데, 상사한 것은 이들이 함께 수강하고 함께 연구했기 때문에 빚어진 결과이다.

13) 선본으로 여겨지는 정문연 107장본 및 하바드대본과의 관계, 이 대본들의 질 문제는 뒷날 다시 별고를 통해 천착해 보기로 한다.

하기로 한다.

II. 적강형 소설과 탐색형 소설로서의 <숙향전>

<숙향전>에는 적강화소 혹은 적강인물들이 우리의 다른 어느 고전 소설들에서보다도 많이 등장한다. 이 면이 바로 <숙향전>이 지니고 있는 적강형 소설로서의 한 표면적·표층적 특질이다. 주인공 숙향과 선은 각각 선녀와 선관, 곧 '月宮小娥'와 '太乙仙君'(혹은 太乙星君)으로서 선계에서 月緣丹을 훔친 죄와 이 훔친 물건을 받은 죄 및 서로 글지어 화답한 죄로 적강하고 있고, 숙향의 부모인 김전 부부는 봉래산의 선관선녀 '凌虛仙 夫婦'로서 옥황상제께 굴 進上. 늦게 한 죄¹⁴⁾로 적강하고 있다. 그런가 하면 또 숙향의 養母이자 擬似母인 장승상 부인은 '奎星仙女'로서 선계에서 항아에게 득죄한 월궁소아를 옹호한 죄로 적강하고 있다. 이 이외에 거북으로 變身한 용녀(동해 용왕의 딸이자 표진강 용왕의 부인인 선녀)도 역시 적강한 존재¹⁵⁾로 볼 수 있는 바, 적강인물 혹은 적강화소는 하나 더 추가된다. 그러니 이 작품 속에는 4개의 적강화소가 중첩되어 등장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신선들의 적강죄목과 삶 사이에는 긴밀한 유기성이 있다. 이들은 우선 각각 자기의 전생죄 선계죄에 상응하는 고통의 시련을 이 현생 속계에서 자심하게 겪는다. 이 시련은 득죄한 적강인 혹은 탐

14) 이 이대본은 '췌'진상 늦게 한 죄로 되어 있으나, 정문연·하바드대·파리 경관 등의 제본은 '굴'로 되어 있다.

15) "용녀 답왈 '옛날 수희용왕이 수정궁의 모와 잔치홀새 사랑하던 시녀 유리잔을 깨여시매 죄 입울가 감초고 고치 아니호엿다가 부왕이 아르시고 노호스 나를 반하슈의 댕치시미 물가의 나왓다가 어부으게 잡피여 죽게 되여더니 맛춤 김승서 구호를 입어 수라나시미 그 은혜를 감지 못홀가 원호여습더니'" (39:1-6)

색의 주체가 피할 수 없이 겪어야만 하는 필연적인 것이다.

여기서 특히 주목되는 것은 주인공 김숙향과 이선의 시련이다. 이들의 시련은 전생죄 천상죄를 보속하고 본래의 세계인 천상계로 되돌아가기 위해, 본래의 신분 내지 정체를 탐색 회복하기 위해, 겪어야만 하는 하나의 필연적인 과정으로 주어진 것이다. 우리는 여기서 이 <숙향전>이 적강형 소설인 동시에 탐색형 소설임을 알 수 있게 된다.

우선 남녀 주인공들의 시련부터 살펴보기로 한다.

1. 숙향의 시련

이 속계에서 숙향은 특히 극심한 고통을 겪는다. 5회에 걸쳐 죽을 액(형액)을 넘긴다. 그녀가 선과 함께 죄를 짓고서도 선보다도 훨씬 더 심한 고통을 겪는 것은 득죄행위의 주체이자 원인행위 제공자이기 때문이다.¹⁶⁾

이러한 면에서 볼 때 천상계·선계는 상위의 세계·빛의 세계로서 고통 혹은 시련이 없는 곳이고, 지상계 속계는 하위의 세계·어둠의 세계로서 고통 또는 시련이 뒤따르는 곳이다.¹⁷⁾ 전자는 죄를 짓지 않은 신

16) “‘선녀난 먼저 장승승 덕으로 가 갯서 은혜를 심연을 갑툭 후의 락을선군을 만나 인하여 부모도 만나볼 거서니 그러호주면 이제 심오연이 되리라.’ 숙향이 놀나 왓 ‘인간 고승을 칭각호오면 호로가 심연 갓소오니 추라리 주저하여 죽고져 하나이다.’ 부인 왓 ‘선녀 아모리 죽고져 하여도 천승의서 죄를 줄히 어더 계시미 인간의 나려와 다섯번 죽을 익을 지닌 후의야 천승죄를 면호고’ ”(19:1-7)

“숙향이 혼 습 짓고 왓 ‘혼 가지로 죄를 짓고 었지 선군은 귀히 되게 호고 나는 무숨 일노 이타지 죄를 마련하여 고승을 만나 적게 호난고?’ 선녀왓 ‘부인니 처음의 죄를 이루어 너시고 선군은 옥대 향안전의 혼 시도 못 써나난 벼슬될 분더러 옥대 극히 소행호시미 인간의 적호할 일 업사오되 향아 청죄호시니 옥대 마지 못호스 인간의 너쳐 서로 (‘너쳐서도’의 잘못-필자 주, 정문연107장본 참조)귀히 되게 호여’”(43:6-끝)

17) 성현경, 적강소설연구, 《韓國小說의 構造와 實相》(영남대 출판부, 1981) p.63

선들이 사는 곳이고, 후자는 죄를 지은 선선들이 유배와, 인간으로 탈바꿈하여 사는 곳이라는 차별성을 지닌다. 득죄자들은 이 속계에서 본래의 자기 신분, 自己 正體性(자기 동일성, self-identity)을 상실한 채 온갖 고통을 감수해야만 한다.

숙향은 상위의 세계에서 죄를 지은 결과, 이 하위의 세계 속에서 5차례의 큰 시련을 겪어야만 겨우 속죄하게 된다. 이 속죄를 위한 시련의 내용은 일찍이 觀相家 왕균의 예언을 통해 잘 요약 豫示¹⁸⁾되고 있다.

왕균니 이르되 “이 익기난 인간 스랍 아니라 월궁항아의 정기를 타 낫소오니 전칭죄를 이승의 와 다 갑툼 후의 반다시 조흔 시절을 볼 거시니 선분은 극히 험하나 후분은 조호리라.” 허거날, 김전 왈 “후분 선악은 아지 못하나 선분은 우리 아직 의식을 그리지 아니하니 엇지 고상홀일이 잇스리오.” 왕균니 크게 웃고 왈 “스랍의 팔조난 아지 못하나니 니 비록 죄조 업소나 익기 사쥬와 송을 보오니 오세에 부모를 이별하고 정처업시 단니다가 십오세 당하여 다섯번 죽을 익을 지니고 십칠세의 부인을 봉하고 니십의 부모를 만나 퍽평영화로 지니다가 칠십이 되오면 도로 천상으로 올라갈 팔조니다.”(7:11-8:10)

숙향은 5살때 도적들(外敵)의 난리를 만나 부모와 이별¹⁹⁾하고, 도적

18) ‘예시’는 쥘레뜨가 사용한 ‘prolepsis’의 譯語이다. 이것의 대개념은 ‘回示’로서 쥘레뜨의 용어로는 ‘analepsis’이다. 권택영은 이것들을 각각 ‘예상’과 ‘회상’으로 번역하였는데, 필자는 일찍부터 ‘예시’와 ‘회시’로 쓰고 있다.

J.Genette, *Narrative Discourse*(trans. 1980, Ithaca: Cornell Univ. Press)

권택영, 《서사담론》(교보문고, 1992) p.30

성현경, 성년식 소설로서의 심청전, 《서강어문》3 (서강어문학회, 1983) p.13

19) 하위세계·속계로 적강한 숙향은 이 속계에서 부모를 잃음으로써 다시 한번 더 하위세계로 하강하고 있는 셈이다. 우리는 이 자리에서 프라이의 다음과 같은 발언을 되짚어 보게 된다.

들에게 칼로 살육당할 뻔하는 위기를 만나 이를 가까스로 모면한다. 이 액은 지상계에서 첫번째로 경험하는 액으로서, 속계에서 맨 처음 겪는 자기신분·자기 정체성의 상실이다. 그러나 그녀는 이미 천상계·선계에서 자신의 신분 혹은 정체성을 상실하고 쫓겨온 존재이기에, 이 인간계·속계에서 다시 한번 더 자기의 신분 또는 정체성을 잃고 시련을 감내하게 된 셈이다. 속계로 쫓겨오면서는 자신의 배우자(작)와 격리되고, 산(반야산)속에 내던져지면서는 자기의 부모와 분리된 것이다. 그녀는 여기서 황새·까치·잔나비·사슴 같은 신이한 날짐승과 길짐승들의 도움을 받아 의식주를 해결하고 연명한다.

두번째 죽을 액은 冥司界의 왕래이다. 시왕(十王)이 죽은 영혼들을 관장하고 있는 명부의 세계, 이 세계에 들고 남은 곧 儀禮(儀式; rite, ritual, 혹은 ritual ceremony)의 죽음과 재생, 상징적 사망과 부활을 뜻한다.²⁰⁾ 마고할미의 변신인 靑鳥에게 이끌리어 이 명사계에 들어온 숙향은 地母神인 后土夫人의 호의로 되살아날 뿐 아니라²¹⁾, 마침내는

“하강의 테마들은 기억이 상실되거나 위축된 세계에 묻힌 부모들의 모습이 드러나거나 재생 또는 재현되는 제재에 중점을 둔다. 소설(로망스)에서 하강 테마는 혈통적 의미에서의 하강과 상당히 밀접한 관계를 갖는데, 여기서 결정적인 사건은 주인공들과 그들 부모 사이의 진정한 관계를 발견하는 것이다.” (The Secular Scripture, p.122)

20) “부인 왈 ‘선녀 아모리 죽고져 하여도 천송의서 죄를 중이 어더 계시면 인간의 나려와 다섯번 죽을 익을 지닌 후의야 천송죄를 면하고 조흔 시절을 보실 거시니 그리 아옵소서. 저 점계 도적을 만나 죽을 번하여 혼변 익을 당하시고 이제 명사계를 단어가오니 두 번 익을 지니시오나 이 압히 또 세번 익이 잇시오니 조심하십시오.’” (19:5-10)

21) 시왕이 관장하는 이 명사계(冥府)는 지하계와 죽음의 세계라는 면에서 지상계보다도 더 하위의 세계에 속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숙향이 접하고 있는 이 세계는 상위의 세계인 선계와 별로 다를 것이 없다. 그녀는 여기서 후토부인과 선녀들을 만나 오히려 선계와 접촉하고 있다. 이만큼 서양의 공간관념과 우리의 공간관념은 상이하다. (N.Frye, 《The Secular Scripture》 제 4장 하강의 테마와 제5장 상승의 테마, pp.97-157 참조) <숙향전>속에서 천상계·지상계·지하계가 마치 하나의 세계인 양 밀착 혹은 통합되어 있음은 이미 지적한 바다.

이 후토부인을 통해 자기의 과거사 -일부의 正體-에 관한 정보를 입수하고, 미래사에 관한 정보까지도 입수한다.

선녀 천송의 게실 직 항아르게 득죄하여 죽게 되오니
규성이 옥매게 솔와 구혼 은혜 잊습더니 이제 규성이 득
죄하여 인간의 내려와 남군췌 장승상 부인이 되여스오니
선녀난 먼저 장승승직으로 가 게서 은혜를 갑툼 후의 톱
울선군을 만나 인하여 부모도 만나볼 거시니 (18:9-19:3)

이 대목은 숙향의 과거사에 관한 回示와 미래사에 관한 豫示라고 하는 2중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셈이다. 숙향은 여기서 비로소 자신이 왜 저 천상계·선계를 상실하고 이 지상계 속계로 유배왔는가, 헤어진 배우자와 부모를 언제 만날 수 있는가를 인지하게 된다. 또한 자신을 맡아 길러줄 부모가 누구인가도 알게 된다. 숙향은 자신의 宿業이라도 두터워서, 또 전생에 받은 은혜가 하도 커서 이와 같은 많은 시련을 겪고 그 큰 은혜를 다 갚은 뒤야만 자신의 신분 혹은 정체가 회복될 수 있음을 인식하게 된 것이다.

숙향은 지상계로 적강할 때 자기 신분이나 정체성만 상실한 것이 아니다. 그녀는 이 정체성과 함께 자신의 과거에 관한 기억도 잃었다. 이처럼 자기 정체성의 상실은 곧 기억의 상실과 짝을 이루고 있다.²²⁾

22) <구운몽>과 <심청전>에도 다 같이 이 적강화소·정체성(정체성 상실)화소와 기억상실 화소가 짝을 이루면서 등장하고 있다.

“使者 재촉하여 방에 들라 하거늘 性眞이 마음에 疑慮하여 머뭇머뭇하니 사자 뒤으로서 마이 밀치니 …(중략) …‘나를 求하라.’ 하더니 소리 목구멍에 나며 말을 이루지 못하고 다만 아이 울음소리를 할러라. …(중략) …漸漸 자라 부모의 恩情을 아니 前生일은 茫然히 잊고 생각치 못할러라.”(서울대본<九雲夢>p.25; 정병욱·이승욱 교주본, 민중서관, 1972)

“시녀를 명하여 ‘다과를 나와 먹이라.’ 하니 이윽고 시녀 주지반의 추를 노화 나오니 박옥종의 안개 갇튼 추와 티초갇튼 과실이라. 청이 바다 먹으리 정신이 썩씩하여 전세일이 넉넉흔지라.”(京板24張本 沈清傳 13책장 뒷면)

숙향은 그러나 후토부인이 주는 '경액'을 마심으로써 일시적으로 잊어버렸던 옛날 -자신-에 대한 기억을 되찾고 있다.

부인왈 “선녀 인간의 나려와 더러운 물을 만나 먹어시
 댁 정신니 밋귀여 전싱일을 모로나이다.” 선녀 명하여
 “경익을 드리라” 혼티 선녀 만호잔의 호박티를 밋쳐 잇실
 갓탄 것슬 부어 드리거날 바다 먹으니 맛시 젓맛 갓고 가
 중 향기롭더라. 먹은 후의 천송일과 인간의 나려와 부모
 를 일코 바장이며 고송후난 일을 일일이 알고 몸은 비록
 아히나 마음은 어린니라. 직시 이러나 부인게 스레 왈
 “첩은 천송의 득죄하고 인간의 나려와 고초이 단니거날
 이티지 어엽비 네겨 티접하시니 지극 감극하여이다.”
 (16:2-10)

위에서 보다시피 기억의 회복은 곧 자신의 신분이나 정체성의 확인 내지 회복을 의미한다. 이와 같이 기억의 상실(단절)과 회복(극복)은 곧 자기 정체성의 상실(단절) 및 회복(극복)과 짝지어 맞물려 있는 것이다. 이 <숙향전>에는 이 기억의 상실과 회복 화소 -기억상실화소²³⁾ - 및 정체성의 상실과 회복 화소 -정체성 화소²⁴⁾-가 유난히 많이 등장하고 있다. 그것은 숙향의 경우는 명사계 용궁 요지 등의 異界 내지 仙界 여행을 통해서, 선의 경우 역시 요지 용궁 봉래산 등의 선계 여행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다.

숙향은 그러나 후토부인이 마련해 준 흰 사슴을 타고 양부모 집으

23) 프라이는 이것을 '기억상실 화소'(the motif of amnesia)라고 명명하고 있는데, 이 명명이 무난하다고 본다. 우리가 적강과 송천의 화소 역시 '적강 화소'라고 줄여 부르고 있기 때문이다.

N.Frye, 《The Secular Scripture》, p.102 참조

24) 프라이는 이것을 '정체성 화소'(identity motif)라고 부르고 있는데, 이 역시 타당한 명명이다.

앞의 책, p.106 참조.

로 가다가 배고픔을 느끼고 그것을 면키 위해 金盆에 심은 나무의 열매를 따 먹는데, 그렇게 함으로써 한때나마 되찾았던 전생의 기억을 도로 상실하고 만다. 다시 자기 정체성을 잃고 만 것이다.

“이 수심을 타시면 비록 만리라도 순식의 가리니 나리
시난 곳되 시중후실 거시니 이 나무열매 썩 잡슈쇼셔.”
숙향이 부인에게 빙빙 수레하여 후직하고 그 빙늑을 타니
구름을 헛치고 나난 다시 가니 아모딘 줄 모를니라. 혼
곳되 다다르니 그 수심이 넘어져거날 숙향이 내려보니 빙
고푸거날 그 나무열매를 썩 먹으니 빙는 부르되 천송일이
아득하고 인간 고승만 칭각하니 도로 아히 무음되여 도로
보니 수심은 아니요 동산일네라 (20:9-21:5)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놓칠 수 없는 것이 하나 있다. 그것은 숙향의 잠재의식 속에 남아 있는, 혹은 갇혀서 刻印된 ‘罪人意識’이다. 숙향은 이 사건이 있은 뒤, 장승상 부인 앞에서 “숙향은 전생의 죄 중후와 오세의 부모를 여히고 동서 표박하여” (30:7-8)란 말을 하고 있다. 또 숙향은 사향의 모함을 받고 장승상택을 나와서도 비슷한 말을 하고 있다. “길 압히 큰 물이 잇거날 그 물의 썩져 죽고져 하여 후날게 표비하고 왈 ‘숙향은 전생죄 중후와 부모를 일직 여히옵고 정처업시 단니다가’” (37:6-8). 이것들이 모두 숙향이 자신의 정체성을 서서히 인식해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백록에 의해 장승상택에 인도된 숙향은 결국 여기서 세번재의 죽을 액을 만나게 되는 端初를 마련한다. 그녀는 장승상 부인의 시비인 사향의 모함을 받고 -장승상의 옥장도와 부인의 금봉채를 훔쳤다는 누명을 뒤집어 쓴 채- 정처없이 길을 나서²⁵⁾, 마침내 표진강에 投身한

25) 하위세계로 하강한 숙향은 여기서 다시 한번 더 하강하고 있는 셈인데, 우리는 이 자리에서 프라이의 다음과 같은 발언을 상기하게 된다.

다. 이 강물 속에 들고 나는 과정은 곧 입사식·성년식의 한 과정으로서 두번째 액 -명부에 들고 나는 과정- 과 함께 儀禮的 사망과 재생을 상징한다.²⁶⁾

숙향의 경우, 이 현세에서 도둑질한 허물은 없지만, 전세에서는 月宮의 월연단을 훔친 前科가 있다. 그러므로 이 죽음은 곧 전과를 씻는 하나의 속죄과정으로서 이해될 수도 있다. 전생의 두터운 업장을 보속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시련의 과정을 거듭거듭 겪어야만 하는 것이다. 숙향은 이리하여 마침내 양부모와도 이별하게 된다.

그러나 숙향은 월궁향아의 명령을 받고 내려온 선녀 -과거 천상 小娥 시절, 자신의 시녀였던 선녀-들에 의해 구원된다. 표진강에 빠진 숙향은 또한 한 선녀 -역시 과거 자신의 시녀였던 선녀-가 주는 이슬 같은 차를 받아 마시고, 다시 그동안(한때) 잊었던 천상계에 관한 기억을 찾게 되고, 자신의 정체와 미래사를 알게 된다.

선녀 웃고 왈 “부인니 인간의 나려와 더러(은) 니를 만
니 쉬어 계시고 인간 음식을 만나 먹어시리 우리를 몰나
보시도소이다.” 옥호를 기우려 유리잔의 이슬 갇힌 차를
기우려 숙향이 바다 마시니 그제야 월궁소아로 승제 압히
근시한다가 틱을선관과 서로 글지어 화답하고 옥대의 월
연단을 도적하여 준 죄로 인간의 적하여 고심하던 일과
그 두 아히난 월궁의서 부리던 시비인 줄 알고 일변 혼심
하며 일변 반가오를 익이지 못하여 (40:10-41:5)

“무덤과 동굴이라는 하위세계로의 하강과 더불어 죽음과 재생의 원형은 여기서 기본적인 형태의 하나로 된다.”(앞의 책, p.114) “이 하위세계는 소외와 고독이 점증하는 세계이다. 남주인공은 여주인공이나 자신의 친구로부터 분리될 뿐 아니라 잘못 고발된 중요한 죄목들로 인해서 고립된다.”(같은 책, p.115)

26) 성현경, 성년식 소설로서의 심청전, 《서강어문》3 (서강어문학회, 1983)

pp.14-17 참조

선녀 왈 “한치 마르소서. 부인의 인간 부모님도 다 봉
 낙산 선관선녀로서 천승의 득죄하고 인간의 내려와서 부
 인을 여희시고 주야 간중 석켜 전심죄를 속하게 하난 일
 이요, 부인도 전심죄로 부모를 여히고 고승을 지니신 후
 의야 천승죄를 속하게 하여스오니 중승승대의 십여년 연
 분만 잇실 다람이니 그도 한치 마르소서. “(중략)” 노전
 (蘆田:필자주)의 가 화적을 보시고 낙양 옥중의 가 슈형홀
 일을 보시고 만련궁방을 지니신 후의야 톱울성군을 뵈와
 영화를 보시고 인하여 부모를 만나 보시리라.”
 (41:8-42:9)

이승에서의 사라짐·죽음은 즉 저승에서의 나타남·남(生)이고, 이것이
 곧 일시적으로 단절되었던 기억의 회복으로 이어지게 된다. 하지만 아
 직 숙향은 저승에 머물 계제가 아니다. 더 많은 業報를 치루어 내야만
 저승에 편입될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은 선녀가 말해준 숙향의 미래사
 -바로 앞의 인용문들- 에 잘 드러나 있다. 숙향은 이와 같이 이 표진
 장에서, 자신이 속계에서 겪어야 할 시련들이 어떤 것인가를 알게 된
 다.

주인공의 과거사와 미래사가 回示와 豫示의 반복을 통해 밝혀지고,
 현재사와 겹쳐 형상화되고 있다. 선녀들(용녀 포함)이 숙향에게 일러
 주는 그녀의 과거사와 미래사에 관한 정보는 반야산에 버려짐으로써
 시작된 그녀의 고행이 낙양 옥중의 고행 및 얼마간의 獨守空房의 고행
 으로 끝나게 될 것임을 인지시켜 주고 있다.

숙향은 그리하여 마침내 지상계·인간계로 다시 복귀하게 되는데, 이
 속계로의 복귀는 곧 선계에 대한 기억의 상실·단절(망각)을 가져오게
 된다.

숙향이 비의 내려 도라보니 밭서 간 텃 엽난지라. 숙향

이 실패 마음을 정치 못하여 눈물을 뿌리고 동덕회로 향
하여 가더니 비 심히 굵은지라. 선녀 주던 동정글 갖탄
것을 먹으니 비 부르되 천승일은 다 잊치고 인간 고승만
싱각히더라.(45:1-4)

그런데 숙향은 낙양옥 속의 횡액에 앞서 4번째의 액인 蘆田(갈대밭) 속의 횡액(화재액)을 더 겪어야만 한다. 넓은 들의 한 복판 갈대숲 속에서 불을 만나 목숨을 잃을 지경에 이른다. 이 때 火德眞君이 나타나 그녀를 구해준다. 그는 숙향에게 “불 형세 급하니 너 가진 것과 옷실 버셔 너 섰던 곳의 낫코 네 몸만 닮은 듯의 입피라.”(55:3-4) 고 한다. 이 옷은 곧 淑香의 分身으로서 태워지기에 이르른다. “숙향이 옥실 버셔 노호니 불이 발서 옷실 다엮더라.”(55:5) 숙향은 알몸으로 불에 달구어지고, 마침내는 불에 태워지고 있다.²⁷⁾ 물(표진강 물)에 의해 淨化된 숙향이 다시 불에 의해 정화되고 있는 장면이다. 이 대목 역시 儀禮的 죽음 및 재생의 과정을 형상화한 것임은 두말할 나위 없다. 이 儀式-물과 불의 洗禮-곧 犧牲·贖罪·再生·成年 儀式 등을 겪은 숙향은 마고할미가 살고 있는 술집, 낙양성 동쪽 마을에 있는 梨花亭에 머물러 정착생활을 시작하게 된다. 그러므로 마고할미는 숙향의 제 2의 양모(養母, 擬似母)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숙향에게는 아직도 마지막 액인 5번째 액, 곧 낙양의 옥중액이 기다리고 있다. 마고의 주선으로 선과 혼인한 숙향은 시아버지(선의 아버지)로부터 죽임을 당할 뻔한다. 선의 아버지 이정은 아들 선이 부모 몰래 혼인 -不告而娶- 하였다 하여 격노하고, 며느리로 들어온 숙향을 낙양옥에 가둔 뒤, 숙향의 아버지자 낙양 태수인 김전으로 하여금 그녀를 죽이도록 명령한다. 이와 같이 명령을 받은 김전은 숙향

27) 물론 숙향의 옷이 숙향의 몸을 대신하여 태워지고 있는데, 이것은 숙향의 ‘의례적 죽음’을 상징한다.

에게 큰 칼을 씌워 하옥한다. 이 감옥 역시 죽음의 공간인 동시에 재생의 공간임은 두말할 나위 없다. 이 감옥은 <단군신화>의 동굴이나 <춘향전>의 감옥과 같은 상징성과 의미를 지닌다.²⁸⁾ 숙향은 이 감옥에 들고 남을 통해서 역시 의례적으로 죽고 의례적으로 거듭나고 있다. 그러므로 숙향은 이 5액을 통해서 5회의 통과 의례(성년의례, 재생 의례 등)를 겪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숙향의 이 혼인은 內密婚²⁹⁾·事實婚일 뿐 正式婚·合法婚이 아니다. 저 쪽은 선의 고모이자 양모(격)인 좌복야 여부인이 주선하고, 이 쪽은 숙향의 양모격인 마고할미가 주선한 혼인으로서, 신랑과 신부 양쪽의 부모는 다 이 혼인과정에서 거세·소외되었기 때문에, 조선조 당대의 관습에 비추어 볼 때 不法婚으로서 인정할 수도 있는 것이다. 게다가 숙향의 현재 신분은 부모를 모르는 정체 불명의 여인으로서 슬집 노파 마고의 양녀인 천민인 바, 이 낙양의 옥액이 비록 숙향에게 마지막 액이기는 하지만, 이것이 그녀에게 있어서 시련의 끝은 될 수 없다. 이것이 죽음의 고비로서는 끝이지만, 그녀가 선의 정식 아내가 되기 위해서는 아직도 통과해야 할 관문들이 꽤 남아있다.

숙향이 자신의 신분, 자신의 정체성을 완전히 회복하기 위해서는 몇 고비를 더 넘기고 몇 구비를 더 감돌아야만 한다. 우선 제2의 양모와 헤어져야 하고, 제1의 양부모를 만나 자신의 정체를 확인시킨 뒤 은혜를 다시 갚아야 하고, 또 자신의 혈친(부모)들을 만나 자기의 혈연적 정체성을 회복하고 드러내어야만 한다. 그리고 나서 시부모가 제시하

28) 성현경, 南原古詞本 春香傳의 구조와 의미, 《古典小說 研究의 方向》(한국 고전문학연구회, 1985)

——, 檀君神話의 문학적 연구, 《檀君研究》(서울대 종교문제연구소; 서울대출판부, 1994)

29) 이 內密婚이란 용어는 서연희가 사용한 것이다.

서연희, 숙향전의 서사구조와 의미, 《西江語文》5, p.76 참조.

는 자격시험 -시아버지의 관대짓기 시험- 에 통과해야만 한다. 이러한 뒤에라야만 비로소 며느리로서, 즉 선의 정식 아내로서 수용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 뒤 다시 매향을 자신과 同班列의 여인, 그러니까 남편 仙의 제2부인으로 수용할 때 선과 명실공히 한 가정을 이룰 수 있게 된다.

2. 선의 시련

이선은 옥황상제를 가까이서 모시던 仙官 '태을선군'이었으나 仙女 '월궁소아'가 흠쳐서 주는 月緣丹을 받아 먹고 그녀와 글 지어 화담한 죄로 저 천상계로부터 이 지상계로 쫓겨온 존재이다. 그러므로 그의 저 선계로부터 이 속계로의 적강추방은 곧 선관의 신분 상실, 자기 정체성의 상실을 의미한다. 그는 비록 죄를 짓기는 했으나 범죄에 있어서 소극적·수동적이었던 데다가 옥황상제의 총애마저 받고 있던 터라 굳이 이 인간계로 쫓겨 오지 않을 수도 있었다. 그러나 그는 월궁향아로 인해서 -월궁향아가 옥황상제에게 선에게도 숙향과 똑같이 벌줄 것을 청함- 이 세상으로 유배오게 된다. 일단 죄를 지었고, 그 결과 내쳐진 이상, 시련은 어차피 그가 감당해야 할 몫이다.

선은 어느 해 삼월 보름날 '대성사'에 놀러 갔다가 거기서 꿈을 꾸게 되는데, 대성사 부처가 인도하는 이 꿈속 여행을 통해서 瑤池의 경치를 구경하고 대추알 같은 仙藥을 받아 먹은 뒤 그 동안 잊었던 과거(前生, 仙界)의 일을 기억해 내고, 자신의 신분 혹은 정체를 알게 된다. 선의 시련은 여기서부터 시작된다. 그는 화공(畫工, 闔工)인 조장이 가지고 있는 繡簇子 -자신의 天定配匹인 숙향이 역시 꿈속에서 요지 여행을 하고, 그 경계를 수로 놓은 족자- 를 구하는 데 얼마간의 어려움을 겪는다. 그는 마침내 조장에게서 산 수족자에 글을 써 놓고

마고할미를 찾아 나서는데, 여기서부터 그에게 보다 심도있는 시험(시험)이 가해진다.

마고는 우선 仙의 淑香에 대한 의지 -愛情- 를 시험하기 시작한다.

할미 왈 “낭군은 승서되 귀공주라 가문과 부귀 천하의
 으뜸하니 부마 아니되면 공경티부의 아름다운 소희 될지
 라, 엇지 어린 소익을 차주 비필을 숨으리요?” 니랑 왈
 “소익 무릅 허물이 잇난잇가?” 할미 왈 “소익난 천송최
 중후와 인간의 나려와 미천한 소인의 주식이 되여더니 오
 세의 난중의 부모를 여회고 거어지 되여 정처업시 단니다
 가 도적을 만나 칼 마주 한 팔 업고 포진물의 썩져 죽게
 되여더니 질 가난 형인니 구하여 건져니니 두 눈니 청밍
 간이 되고 노전이란 썩의 와 주다가 화지를 만나 한 다리
 절고 썩 후토부인 성향을 덧드려³⁰⁾ 두 귀 먹고 입만 남아
 스니 불칙한 거어지라 차주 실 티 업나이다” 니랑 왈 “전
 상의 무신 죄 지중후여 이티지 출혹한 병인이 되여난요?”
 할미 왈 “소익난 본티 월궁선녀로서 승대 압히 근시후난
 티을선군으로 더부러 글지어 화답하고 옥퇴의 약을 도적
 후여 중죄로 주심한 병인니 되엿다 후더이다.” 니랑이 한
 숨 짓고 왈 “연분니 지중후면 병인이라도 엇지 관계후리
 요”(82:9-83:끝)³¹⁾

이렇게 선의 의지를 시험한 마고는 다시 선으로 하여금 숙향의 거
 주처이자 자신의 거소인 ‘낙양동촌 이화정’ 술집을 출발하여 숙향의

30) 무속적·민간신앙적 표현으로, 이것은 이 소설이 무교 내지 민간신앙 역시 수용
 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31) 숙향의 후견인으로서 ‘김 숙향과 이 선의 혼인’의 중매자이기도 한 마고할미는
 이들을 중매하기에 앞서 숙향에게도 이 선에게 부과했던 것과 비슷한 시험을 부과
 한 바 있다.

할미 왈 “그 소년니 전상의 상제 압히서 모든 별 가음아난 티을성이요, 이상의
 서 니승서의 귀동주니 진주 낭주의 비필이 되엿죽후되 다맛 그 공주 전상의 죄로
 한 팔 한 다리 저난 병인이리 추비후더이다.” 낭주 왈 “진실노 티을선군이면 비록
 두 눈 멀고 출혹한 병인인들 관계후로밧가.”(94:4-9)

옛 부모집(김전의 집)·양부모집(장승상댁)·표진강·노전 등, 숙향이 밟았던 苦行路를 차례로 되밟게(複踏하게) 한다. 숙향을 곁에 두고서 능청스레 거짓말을 해 재차 선의 의지를 시험하면서 그에게 시련을 과하고 있는 장면이다. 선이 김전의 옛집과 장승상댁을 찾지만 헛수고만 한 채 돌아옴은 두말할 나위 없다. 노전에 가다가는 화덕진군을 만나지만 화덕진군은 자신이 귀먹었다고 역시 능청을 떨고 선을 한없이 굶린다.

니랑이 나아가 직비호되 보와도 본 체 아니호거날 민망
호여 꾸려 업드려 왓 “나는 지닌가난 핑각이웁더니 갈 길
을 몰나 못나이다.” 그 노중이 눈을 조금 찌 보고 왓 “니
귀먹어서니 소리를 크게 호라.”(90:9-91:1)

선은 이처럼 화덕진군에게 정성을 시험당하는 무수한 시련을 겪은 뒤 -조롱을 당한 뒤- 마고할미를 찾아가 다시 정성을 여러 번 시험당하고 나서야 비로소 그녀로부터 숙향과의 혼사를 주선해주겠다는 언질을 받아내기에 이른다.

(선)왓 “삼산과 수희를 다 도라 숙향을 좇다가 종시 종
적을 아지 못하면 이 몸이 죽어 혼탁이라도 숙향의 얼굴
을 볼 밧게 업다.” 호고 이러나 가려 호거날(99:3-5)

“전칭일을 몰나실 제난 엇지 이 싱각이 잇스리요만은
호날이 정호신 비필이라. 숙향만 어더 비필 정호 싱각분이
요, 또 숙향이 날노 호여 인간의 나려와 빈천호 사람 되
엿다 호고 또 병인도 되엿다 호니 니 마음이 철석인들 엇
지 아니 좇고져 호리요. 밍서코 숙향을 추자 보지 못호면
인간 니별이 쉬울가 호노라.”(99:9-100:3)

화덕진군과 마고할미는 새빨간 -서양식으로는 하얀- 거짓말을 통해

서 선을 끌어고 있는데, 이것들은 모두 선의 의지를 시험하기 위한 것들이다. 그러나 선에게 과해지는 이와 같은 시련들은 이미 숙향에게 과해진 시련들에 비해서는 훨씬 가벼운 것들이다. 선의 이 같은 시련들은 숙향의 시련들에 附加 혹은 從屬되어 있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이러한 것들은 수족자 구하는 어려움보다는 더한 어려움을 수반하고 있지만, 다음에 올 것에 견주어 볼 때는 역시 가벼운 것이다. 이것들은 아직도 예비적인 시련들에 지나지 않는다.

선의 시련은 숙향과 임의로 결연(혼인)한 뒤 본격적으로 부과된다. 선은 고모이자 양모인 여부인(숙부인)의 주혼만으로 자신의 부모에게는 알리지도 않은 채 숙향과 결연한 관계로 자심한 고통을 겪는다. 선의 부친 이정은 숙향과의 혼인을 인정하지 않고 선과 숙향을 격리시킬 뿐 아니라 마침내 숙향을 죽일 계획까지 세우는 바, 여기서 선의 고행이 다시 시작된다.

천연은 미진하고 진익은 주심하여 섬섬한 틱도를 몽중의 중간 보고 익연동낙을 광음갓치 니별하고 싱니별도 있거만은 니 니별 갓틀손야. 일월은 광명하여 양인을 보것만은 간중 석키미여, 시각을 쓴난도다.(123:10-124:2)

선은 두번 절하고 일봉서를 남주게 올니나니 싱으로 하여곰 남주 괴로운 일을 보게 호오니 이난 다 싱의 죄라. 이제 지난 일은 속절 업거니와 혼번 니별후의 은하슈 가리엿고 청도 쓴어지니 소식 전홀 길이 업서 셔산의 지난히와 동영의 쓰난 달을 뒤하여 휘웁시 간중만 석일 쓰람이거니(131:4-8)

그러나 이 시련 역시 뒤에 올 것에 견주어 볼 경우에는 여전히 가벼운 것이다. 이보다 더 심한 시련은 그가 전생 선계의 연인이었던 숙향을 본부인으로 택하고, 선계의 본부인이었던 매향 - 설중매의 화신 -

과의 혼사를 거부함으로써 비롯된다. 선은 국가로부터 형주자사가 되어 반적들의 난리를 평정할 임무를 부여받고 목숨을 건 전쟁을 수행하게 된다. 뿐 아니라 마침내는 역시 목숨을 걸고 황후의 생명을 구하기 위한 求藥旅行 -힘난한 선계 여행- 을 수행·감당해야만 한다. 그러나 전자는 이승에서의 업무인 만큼 저승에서의 업무인 후자에 견줄 때 상대적으로 미미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구약 여행은 전혀 낮선 땅·낮선 세계인 선계로의 모험 여행으로서 이야말로 ‘목숨을 건 여정’에 속하기 때문이다.

바다를 지나면서 독 같은 머리와 불빛 같은 눈, 벽력 같은 소리를 지닌 바다 괴물에게 잡혀 시달리고, 12나라를 지나면서는 동료선관들에게 무수히 조롱을 당하고, 가까스로 봉래산에 이르러 구로선을 만나 환혼주와 개언초 및 회혼단을 얻고, 또 천태산에 이르러서는 천신만고 끝에 마고할미를 만나 역시 한없이 기롱을 당한 뒤 벽이용을 얻어내게 된다.

선은 이 여행 도중에 한 선관이 주는 차를 받아 마신 뒤, 그 동안 되있었던 전생 선계에 대한 기억을 되찾고, 설중매가 자신의 전처·본처임을 재확인하게 된다.

한 선관(구로선-필자 주)이 학을 타고 내려와 가로되
 “그 뒤 었지 옛벋을 만나 반가운 인수는 아니호고 무슴
 곤욕을 그디지 호난다?” 승서의 손을 잡고 안지며 왈 “틱
 을아,인간 지미 었더호요? 설중미 그딴를 쫓라가더니 만
 나 보왔난나?” 승서 왈 “인간 지미난 업습고 고승분니로
 소이다.” 그 선관니 쇼왈 “틱을이 밋서 천승일을 다 이젓
 도다.” 동주를 명호여 츄를 드리라 호니,동주 츄를 권호거
 날 승서 바다 먹으니 그제야 천승 틱을성으로 죽죄호여,
 설중미와 부뵈 되엿든 일과 좌중의 잇난 선관니 다 호가
 지 노던 버진 줄 알고 (209:7-210:4)

이렇게 전생(과거)에 대한 기억을 회복한 선, 자신의 정체를 어느 정도 인식한 선은 다시 자신 및 주변인물들의 확실한 정체를 캐어 확인하기에 이른다.

눈물지어 왈 “넌 죄 중하여 인간의 내려왔거니와 그딴
 넋난 무스이 계시되 능어선은 어딴 가시며, 설중미난 어
 딴 잇난요?” 선관 왈 “능어선은 인간 김전이니 그 딴의
 처부모 되었고, 설중미난 양왕의 딸이니 그 딴의 들지 부
 인니 되리라.” 승서 탄식 왈 “소인난 엇지 김전의 딸이
 되고 설중미난 양왕의 딸이 되며 무슨 연고뇨?” 선관 왈
 “능어선은 봉늑산의 귀경 갖다가 승제게 쏘 진송 느진 죄
 로 인간의 귀양 가시되 소인을 위하였고, 설중미난 소인
 를 원망하더니³²⁾ 전심죄로 후심의 부뵈되게 하여시니 좀
 시 간중을 석키다가 만나게 하미요 또 설중미난 승제게
 득죄하미 아니라 저의 부모와 그 딴 다 인간의 내려가시
 미 약슈의 주원하여 썩저 죽으니 후심의 귀이 되게 하되,
 하로라도 양왕의 딸이 되게 하니라.” 승서 문왈 “설중미
 난의 부인니 될진디 엇지 소인이 먼저 되어난요?” 선관
 왈 “그딴 인간의 내려가기난 소인으로 인연하여 인간의 나
 려갓거니와, 향이 다 마련하여나니 그러무로 소인 첫부인
 니 되어 그딴과 혼가지로 천송의 올라오게 하고 설중미난
 그딴 들지 부인니 되어 미쫓추 올라오게 하니라.” 승서

32) 이 전후 대목은 정문연 107장본에는 다음과 같이 기술되어 있다.

상세 문왈 “설중미는 무슨 일로 인간의 날려가며 쇼애는 어니 김전의 딸이 되고
 설중미는 어니 양왕의 딸이 되었는고?” “능허 선심 부처 완정하라 방장산의 갖파
 가 혼저 굴진상을 잘 못흔 지로 인간의 귀향갈새 능허 선심은 남양파 우수 선심 외
 들(아들의 잘못)니 되어 나고 기처는 영천파 장호의 딸이 되어 나셔 또 만나 부뵈
 되여시나, 비을니 쇼아를 위하야 설중미를 중히 아니 너기는 줄 알고 능허 선심니
 미일 쇼아를 원망하는 타스로 니심의 나와 그 딸이 되어 나셔 오세에 일코 십오년
 간장을 썩이게 하였고, 설중미는 그딴 인간의 날려 그미 보려 하고 자슈하야 약슈의
 썩저 죽으니 후심의 귀히 되게 하야 양왕의 딸이 되었는니라.”

梨大本은 그 전사과정에서 저와 같이 일부 내용이 알탈 변질되게 된 것으로 보인
 다. 이 대목의 경우는 정문연 107장본이 정확한 것으로 여겨진다.

왕 “인간의서 양왕의 혼인을 거절고져 후다가 이런 고향
을 당후여거니와, 죽어도 후날이 정혼 일이라 도망치 못
후리로다.”(210:4-212:1)

본래의 정신·기억을 회복한 선은 선계에서 설중매(매향)의 행방을
탐문하고, 속계로 돌아와서는 속향의 말대로 매향(설중매)과의 혼사를
받아들이기에 이른다. 선은 인용문에서 보다시피 기억의 망각과 더불어
그 동안 모르고 지냈던 자신의 신분 혹은 정체성을 되알게 되고,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늘의 뜻 내지 섭리까지도 알게 된 것이다. 이로써
그의 부인 탐색은 종결을 향해 치닫게 된다.

결국 선은 황태후의 병을 고친 뒤 초왕에 봉해지고,³³⁾ 속향과 매향
을 각각 제1, 제2 부인으로 맞아들임으로써 행복한 삶을 누린 뒤 속향
과 함께 선계로 복귀하고, 그럼으로써 시련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난다.
매향이 얼마 안 있다가 그들의 뒤를 따라 역시 승천하여 셋이 합류하
게 됨은 물론이다.³⁴⁾

33) “황제 그 충성을 아르시고 승서 초왕을 봉후시키고”(222:8-9) 그런데 이선은 이미
저 앞(183:1)에서 ‘병부상서 겸 초왕’으로 봉해진 바 있기에, 이 역시 (주 32)처럼
오류로 여겨진다.

34) 물론 작품의 서사는 현재적으로는 속향과 선이 동일 동시에 회혼단을 먹고 승
천하는 것만으로 끝난다. 그렇지만 이 앞 중간의 회시 대목에서 이미 매향이 뒤따
라 승천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잠재적으로는 이처럼 셋이 합류하는 장면으
로 종결된다고 보아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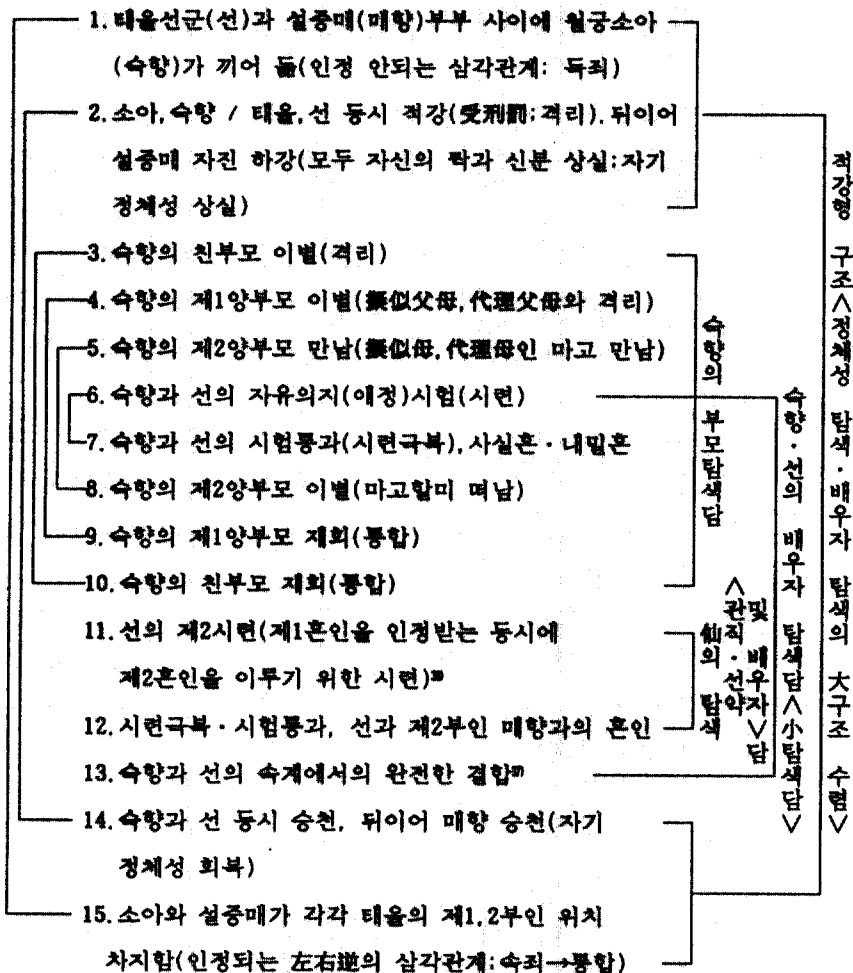
III. 적강형·탐색형, 복합소설로서의 <숙향전>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주인공 숙향과 선은 천상계·선계로부터 神物 私取罪와 任意 結緣罪³⁵⁾를 범하고 자기 정체성을 상실한 채 지상계·속계로 적강하여 혹독한 시련의 삶을 살고, 마침내 보속·속죄한 뒤 승천함으로써 본래의 자기신분·자기 정체성을 회복하고 있다. 이러한 면에서 볼 때, <숙향전>은 본격적·전형적 적강형 소설인 동시에 탐색형 소설 -자기 정체성 탐색소설-로서, 복합형의 소설이라고 할 수 있다.

주요 등장인물들의 시련은 모두 자신들이 전생에 천상계·선계에서 지은 죄를 보속하기 위한 한 방법 (혹은 과정)내지 현재 잃어버린 본래의 자기 정체성을 되찾기 위한 한 방법 (혹은 과정)으로서 마련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하물며 주인공 숙향과 선에게 있어서!

<숙향전>을 서사의 인과논리적 순차에 따라, 곧 파블라에 의거하여 주인공들을 중심으로 재구성하여 도식으로 그리면 다음과 같이 되는 데, 이것만 보더라도 우리 이 작품이 적강형 소설인 동시에 또한 탐색형 소설이기도 함을 알 수 있다.

35) 필자는 '滴降小說研究'(주10)의 책, p.24, 32, 33, 99 등)에서 숙향과 선의 죄를 신물 사취죄와 남녀 상회죄로 서술한 바 있다. 물론 이것은 지금도 옳다. 그러나, 神物이 다른 게 아닌 月緣丹인 점, 이 神藥丹藥을 훔쳐 相戲 -글지어 和答-한 점을 함께 참조하면, 이 남녀 상회죄는 곧 任意 結緣罪가 된다.



36) 표면적으로는 '外賊막기', '仙藥구하기'라고 하는 능력시험·자격시험의 형태를 띤다.

37) 혼인을 부모와 사회 내지 임금으로부터 공식적으로 인정받음.

<숙향전>의 주인공들은 배우자와 부모 모두를 탐색하거나 배우자만을 탐색하고 있다. 김숙향의 경우는 배우자와 부모를 모두 탐색하고, 이선의 경우는 배우자 한쪽만을 탐색하고 있다. 선은 그 대신 높은 벼슬이나 선계의 약을 더 탐색하는데, 이 仙藥探索은 실상 배우자 탐색에 附加·從屬되어 있다. 그런가 하면 이 배우자 탐색은 궁극적으로 자기 정체성의 탐색에 종속되어 있다. 궁극적으로 자기 정체성 탐색에 종속되어 있기는 '숙향의 배우자와 부모 탐색' 역시 마찬가지다. 그러므로 <숙향전>은 탐색소설이되, 잃어버린 자기 정체성·본래의 자기 동일성을 탐색하는 소설이라고 할 수 있다. 이미 살펴보았듯이 숙향과 선은 전생에 선계에서 각각 선녀와 선관으로서 살면서 임의로 사랑을 나누고 임의로 결연한 관계로, 자신의 정체·신분을 상실하고 이 속계로 유배와 시련의 삶을 산다. 그런데 이 시련의 삶은 특히 숙향의 경우, 자신의 속계의 정체 혹은 신분을 잃어가는 고통의 연속으로 형상화되어 있다. 그러나 숙향의 시련은 궁극적으로 본래의 자기 정체성을 회복하는 것으로 매듭지어지는 바 - 선의 경우도 이 점은 마찬가지임 -, 이 작품은 주인공의 적강과 승천을 통해서 자기 정체성의 상실과 회복을 다룬 작품으로서 결국 주인공의 자기 정체성의 탐색과정을 다룬 작품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이 주인공들은 이 속계에서 자기들이 본디 지녔던 신분, 본래 가지고 있던 욕망이 무엇인지 아지 못하고 지내다가 異界의 存在들을 현실이나 꿈 속에서 만나 신비체험을 하고, 이를 통해 자신들의 본래의 신분 또는 정체를 확인한 뒤 본래의 자아를 되찾기에 이른다. 선이 애초에 매향을 거부한 것도, 또 중국에 가서 수용하는 것도 다 이 맥락 위에서 설명된다.

이렇게 좁게는 배우자 탐색, 넓게는 자기 정체성의 탐색으로 시작한 숙향과 선의 적강 생활은 그 승천과 함께 매듭지어진다. 그들은 마침

내 자신들의 탐색을 마치고 정체성을 완전히 회복하기에 이른다. 이 사이에 존재하는 속계의 배우자 탐색이나 부모 탐색이 이 큰 탐색-(선계 및 속계의)자기 정체성 탐색-에 수렴되고, 이 큰 탐색에 대해 부가적·종속적 위치에 놓이게 됨은 이미 지적한 바 있다.

숙향과 선은 본디 서로 짝이 아닌 선녀와 선관의 신분이었으나 상대를 열렬하게 혹은 은은하게 욕구했다. 그 강렬한 또는 은근한 욕망을 지닌 선녀와 선관. 그것이 바로 그들의 정체가 된다. 이 정체성 회복을 위한 힘겨운 시련과정이 바로 그들의 삶의 과정이다.

월궁항아 또는 그 항아의 뜻을 수용한 옥황상제는 결국 그들의 편을 들어 그들의 애정실현을 도와주기에 이른다. 신 내지 신선들은 이렇게 볼 때 모두 사랑에 대해 꽤 너그러운 존재들이라고 할 수 있다. 그들은 인간의 자유의지를 중시한다. 한편 그들은 때로 인간 못지 않은 우스개 소리도 하고, 하얀 거짓말을 하면서 장난도 칠 줄 아는 여유있는 존재들로 형상화되어 있다.

특히 玉帝의 모습이 참으로 재미있게 형상화되어 있다. 그는 때로 편파적이기도 하다. 처음에는 자신이 총애하는 侍從(仙官)인 太乙에 대해서는 죄를 묻지 않으려고 했으나, 곧 항아의 주청을 수용하여 자신의 뜻을 굽힌다. 결국 그는 신선 혹은 인간의 강렬한 욕망이나 자유의지-善意志-를 존중하는 쪽으로 움직이고 있다. 하지만 上界 혹은 上帝나 神仙들이 항상 너그러운 것만은 아니다. 악의-惡意志-에 대해서는 매우 냉혹하다. 사향이 마침내 천벌을 받는 대목-화덕진군에 의해 불의 심판을 받고 벼락 맞아 죽는 대목-이 바로 이와 같은 사실을 입증한다.

무엇보다도 남녀간의 강렬한 정욕을 善意로 수용³⁸⁾하고 있는 점이

38) 많은 적강형 소설들이 다 그러하다. <구운몽>·<옥루봉>·<운영전>·<열녀 함양 박씨전 병서> 등에서도 이런 국면이 발견된다.

돋보인다. 숙향과 선의 사랑이 오늘날 우리의 눈(윤리관)으로 볼 때는 不倫에 해당할지 모른다. 작품 속에 등장하는 옥제의 눈에도 그것은 불륜으로 비쳤다. 그러기에 옥제는 숙향에게만 죄를 묻고 벌을 가하려 했던 것이다.³⁹⁾ 그러나 그는 항아의 주청을 듣고 이내 자신의 생각(계획)을 수정한다. 그리하여 마침내 그들의 강렬한 의지 혹은 욕망을 용인하기에 이른다.⁴⁰⁾

선이 부모의 허락없이, 부모에게 알리지도 않은 채 장가드는 일 역시 윤리에 어긋나는 것이다. 조선조 당대의 윤리관상으로는 더 더욱 용납될 수 없는 일이다. 그럼에도 이 작품은 숙향과 선의 인연을 天定으로 치부하여 맺어주기에 이른다. 오직 허구의 세계·소설의 세계에서만 가능한 일이다. 더욱이 이 속계에서 선계의 位相과는 정반대로 숙향을 제1부인, 매향을 제2부인으로 앉혀 놓고 있는 바, 이 점이 특히 주목된다.

한편 <숙향전>이 또한 주목되는 점·흥미로운 점은 천상계·선계의 존재들에게도 짝이 있는 것으로 그려져 있는 점이다. 여느 적강형 소설들의 경우, 선계의 주인공들에게 性의 구분만은 있는 것 - 예컨대 선관은 남성, 선녀는 여성-으로 되어 있으나, 배우자가 있는 것으로 설정된 일은 없기 때문이다. 여느 적강형 소설들의 경우는 천상계·선계에서의 男女相戲 자체가 절대적 금기사항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이 작품의 경우는 신선들에게도 배필이 있다. 능허선 부부와 태울선군·설중매 부부가 바로 그 예다. 이것이 <숙향전>이 지니고 있는 또 하나

성현경, 주 10)의 책 '적강소설 연구' 편 및, 情欲觀과 朝鮮朝 小說, 《백영 정병옥 선생 환갑기념 논총》(신구문화사, 1982) pp.649-659 참조.

39) 프리틀 킨 숙향에게만 죄가 있을 따름, 거기에 수동적으로 웅한 선에게는 죄가 없다는 것이 玉帝의 처음 생각이었다.

40) 양쪽에 다 벌을 줌으로써, 당장은 용인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벌은 결국 이들을 징계함과 아울러 결합시키기 위한 하나의 방편인 바, 이와 같이 해석할 수 있겠다.

의 독특성이다. 그렇다면 저 천상계·선계는 이 지상계·속계와 하등 다를 것이 없다.⁴¹⁾

숙향과 선이 이 속계로 귀양 온 것은 각각 배우자가 있는 남성을 유혹해 사랑한 죄, 배우자가 있는 남성이 다른 여성과 놀아난 죄에 기인한다고 해석할 수도 있다. 물론 이것만은 아니다. 우선 그들은 神物 '月緣丹'을 私取했고, 그럼으로써 임의로 사랑의 인연을 맺었다. 숙향이 훔친 신물은 보통의 신물이 아니다. 그것은 남녀간을 결연시키는 神藥인 '월연단'인 것이다. 이 신약은 달나라 月宮에서 姮娥가 관장하는 물건이다. 항아는 이 월연단을 가지고 이성간 남녀간의 인연을 맺어 주는 일을 한다.⁴²⁾ 그런데 소아(숙향)는 이 약을 훔쳐 제 마음대로 사랑의 인연을 맺었다. 그러므로 소아는 항아에게 큰 죄를 얻은 것이다. -“선녀 천송의 계실 썩 항아에게 득죄하여 죽게 되오니 ” (18:9-10)-

소아가 월연단을 훔쳐 태울에게 주었다는 것과 태울과 글지어 화답했다는 것은 실상 같은 맥락 위에 놓이는 죄목이다. 후자는 전자에 대해 종속적·부가적인 죄목이다. 이것들은 모두 소아와 태울이 항아를 무시한 채-항아와 관계없이-사사롭게(임의로) 인연을 맺었음을 뜻한다. 그러나 그 죄의 원인 제공자, 원인 행위자가 바로 이 소아에게 소아의 죄가 태울의 죄보다 몇 갑절 더 한 것이다. 태울(선)의 죄는 소아(숙향)의 죄에 대해 역시 부가적·종속적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숙향이 이 작품의 주인공 - 주인공 중의 주인공- 이 되는 것, 그리고 선

41) <숙향전>의 천상계는 이 면에서 여느 고전소설들의 천상계와 구분된다.

42) 전설상으로는 月下老人이 새끼줄로 이 일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숙향전>에는 이 노인이 등장하지 않는다. 이 일은 항아의 소관으로 되어 있다. 이 업무는 옥제가 항아에게 위임을 한 것으로 보인다. 옥제는 수명·복록의 점지 같은 것은 또 다른 선관들에게 맡기고 있다. 물론 이 일들이 옥제의 율허·재가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다. 천상계는 아무튼 分業化·分權化가 참 잘된 세계로 보인다.

보다 더욱 심한 벌을 받는 것, 극심한 고통(시련)을 겪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럽고 당연하다.

그런데 더 더욱 흥미로운 것은 이들의 私戀이 마침내 성공하고 있는 점이다. 소아가 모시던 향아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이들의 사랑을 성취시키고 있다. 딸과 사위(정식 부부)사이에 끼어든 소아를 장인 장모(능허선 부부)가 미워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다. 그런데 이 때문에 능허선 부부는 벌을 받아 적강한다. 향아의 뜻이다. -물론 애초엔 규성선녀의 뜻이었다. 하지만 이 규성의 뜻을 수용한 존재는 결국 향아요, 옥제다- 한편 향아는 옥제가 이 지상계로 즐겨 보내려 하지 않는 옥제의 시종- 별들을 관장하는 일을 맡은 선관- 인 태울도 소아와 함께 적강시키도록 옥제께 주청까지 하고 있는데, 이 점 역시 주목된다. 그런데 이 향아는 소아와 마찬가지로 神藥을 훔친 前科者이다. 이 점에서 우리의 흥미는 더욱 제고된다. 향아는 남편인 예(羿)가 서왕모에게 간청하여 얻은 불사약을 훔쳐 마시고 仙人이 되어 달로 도망쳐 달의 精이 된 존재이다.⁴³⁾ 그러니 만큼 그 주인(향아)에 곧 그 시종(소아)이라고 할 수 있겠다.

향아는 저 선계의 마고할미를 이 속계로 보내 이 마고로 하여금 소아와 태울, 즉 숙향과 선의 사랑을 성취토록 끝까지 원력 조정한다. 마고만이 숙향과 선을 돕는 것이 아니다. 화덕진군·후토부인·부처·용왕·용자, 기타 선관과 선녀, 심지어 갓은 날짐승과 길짐승까지도 이 주인 공을 돕고 있다. 이 원조자들의 도움이 異性 간의 결연을 주관하는 향아의 의지에 따른 것임은 이미 밝힌 바 있다.

향아가 주청한 태울의 적강을 옥제가 수락·유히했을 때, 이미 태울과 소아, 곧 선과 숙향의 속계 인연은 성취될 기미를 보이고 있었다.

43) 張三植, 《大漢韓辭典》(성문사, 1968) p.355 참조.

《淮南子》 羿請不死之藥于西王母, 姮娥竊之奔月宮

다만 이 주인공들의 의지만이 문제로 남아 있을 따름이었다. 속향과 선의 결연의지 자유의지를 시험한 조력자는 드디어 이들을 짝지워 이 속계에서 삶을 마친 뒤 저 선계로 돌아오게 하고 있다.

우리는 여기에서 이 지상계·속계가 결코 부정적 의미만을 지니는 공간이 아님을 알 수 있게 된다. 비록 이 곳이 한편으로는 고통의 장소·시련의 마당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悅樂의 장소·成就의 마당이기도 한 것이다. 오히려 저 천상계·선계가 존재자의 욕망을 제한하는 공간이고, 반대로 이 지상계·속계가 존재자(인간)의 욕구를 실현할 수 있는 공간인 것이다. 이 면에서만 볼 때는 도리어 상위의 세계가 부정적 의미를 지니고, 하위의 세계가 긍정적 의미를 지닌다.⁴⁴⁾ 여기에 우리 문학의 독특성이 있다. 서양 혹은 구미의 문학이론을 곧이 곧대로 도입 원용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이러한 데 있다.

프라이는 서양의 소설(로맨스)들에 나타나는 세계 내지 우주를 신의 세계·낙원(에덴동산)의 세계·지상계(인간계)·지하계(지옥, 해저; 악마의 세계), 이상 4차원으로 나누고, 낙원을 상위의 세계, 지상계를 중간적 세계 - 낙원에 대해서는 하위의 세계, 지옥에 대해서는 상위의 세계라고 하는 상대적 공간임 - 지옥·해저를 하위의 세계로 인식한다. 그리하여 상상력의 산물인 문학의 서사세계는 하강의 테마와 상승의 테마를 주로 다루고 있는 것으로 본다. 모든 문학의 이야기들은 상위세계(낙원적 심상의 천상계세계)로부터의 (인간계·지상계로의)하강, 하위세계로의 하강 - 지상계로부터 지하 혹은 해저세계로의 하강-, 하위(지하·해저)세계로부터의 (지상계로의) 상승, 상위세계로의 상승 - 지상계로부터 천상계로의 상승- 등 근본적으로 이 4가지 서사의 복합체이며, 이것들로부터 은유적인 파생물이라고 본다.⁴⁵⁾

44) 성현경, 주10)의 논문, 책, pp.30-32 등 참조.

45) Northrop. Frye, Bottomless Dream: Themes of Descent, 《The Secular

그리고 하강에서는 고립과 부동성·마법 등이 증대하게 되는데, 이것들 -특히 마법·마력- 이 인간을 꼼짝달짝 못하게 하는 것으로 보는 한편, 간인 존재는 이 하강을 통해 인간 이하의 피조물로 전락⁴⁶⁾되는 것으로 본다. 반면 상승에서는 이와 정반대의 현상이 일어나는 것으로 파악한다.⁴⁷⁾

우리 적강형 소설들 역시 하강과 상승, 곧 적강과 승천을 다루고 있다. 천상계로부터 지상계로의 적강은 곧 자기 정체성의 상실·기억의 상실 -전생·선계의 의식과의 단절- 로 이어지는 바, 필연적으로 기억 상실 화소를 동반한다. 따라서 인간계로 적강한 주인공에게는 으레 고립과 부동성, 마법이 증대되게 되고, 큰 시련이 뒤따르게 된다.

숙향과 선, 숙향의 부모인 김전 부부, 양부모인 장승상 부부등이 겪는 시련도 바로 그들의 전생죄·선계죄로 말미암은 것이다. 특히 주인공 중의 주인공인 숙향이 겪는 고통은 남다르게 뼈저린 것인데, 이것은 그녀의 전생죄가 그 누구의 것보다도 큰 데서 연유한다. 그러나 숙향은 이러한 보속행위·속죄의례가 끝난 뒤에는 선과 함께 자신의 본래의 자아가 속해 있던 세계로 복귀하게 된다. 이 復歸儀式이 곧 昇天儀式이다.

이 승천(상승)의 주제는 적강(하강)주제의 逆인 바, 승천 주제의 처지에서 볼 때, 자유의 증대이고 마법의 파기이며, 기억의 회복이자 자기 정체성의 회복이다. 이와 같은 측면에서 볼 때, 넓게는 우리 적강형 소설들, 좁게는 <숙향전>의 천상계·선계는 상위의 세계로서 자유의 세계·해방의 세계이자 悅樂의 세계라는 긍정적 의미를, 반면 지상계·

Scripture》- A Study of the Structure of Romance, p.97 첫단락 전체 참조.

46) N. Frye, *Quis Hic Locus: Themes of Ascent*, 앞의 책 p.129 참조.

47) "상승의 서사적 주제와 심상들은 하강의 그것들과 逆이다. 상승의 주된 개념은 탈출·기억·자기정체성의 발견이며, 자유의 증대이고 마법의 파기이다." 주46)과 같은 책, 같은 면.

속계는 하위의 세계로서 부자유·고립·마법의 세계이자 고통·시련의 세계라고 하는 부정적 의미를 지니는 공간으로서, 서양의 로맨스들의 세계와 꼭 같은 것처럼 여겨진다. 사실 그렇다. 분명히 그러한 국면이 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일면적·부분적 파악일 따름이다.

우리 적강형 소설들 -특히 <속향전>- 의 천상계·선계는 자유와 부자유, 빛과 어둠이라는 양면성, 양면적 의미를 지니는 공간으로 설정되어 있다. 이 세계는 여러가지 禁制장치를 마련해 놓고 이 곳에 사는 주체들에게 상당한 속박을 가하고 있다. 지상계 못잖은 엄한 율법들이 있어서 부자유스럽기 그지 없다. 남의 물건(神物)을 넘보아서도 안되고, 시간을 어겨서도 안 되며, 이성과 사랑을 나누어서도 안된다. -그런데 <속향전>의 경우만은 독특하게 이성과 사랑을 나누는 문제만은 허용하고 있다. 이미 말한 대로 유독 이 작품은 선계에서의 부부관계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소설의 경우 역시 향아의 중매나 옥제의 윤택없이 하는 임의의 결연만은 철저히 금하고 있다.

천상계는 이 면에서 부모나 매파의 중매 없는 혼인을 금기시하던 이 지상계와 별로 다를 것이 없다. 貴人·貴女가 스스로 유부남에게 사랑을 호소하고 정을 나누는 것을 금기시하던 이 지상계와 하등 다를 것이 없다. 이러한 점에서는 저 천상계는 이 지상계의 은유적 공간⁴⁸⁾이다. 한편, 이 지상계는 속향과 선이 비록 무수한 고통을 겪은 뒤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나마 자신들의 사랑 내지 욕망을 실현할 수 있는 장소로 형상화되어 있기에, 이 역시 부정·궁정의 양면성, 양면적 의미를 지니는 공간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이와 같이 우리 소설들의 천상계와 지상계가 양면적 성격 내지 의미를 지니는 공간이라는 면에서, 서양 로맨스들의 세계와는 변별된다.

48) 성현경, 적강소설 연구, <한국소설의 구조와 실상> pp.30-32 참조.

우리 소설의 지상계와 지하계의 관계, 지하계의 성격이나 의미 등도 꼭 같은 국면을 지나는 바, 서양 로맨스의 세계와는 역시 변별성을 지닌다. 한편 우리네 인간들이 이 상위의 세계와 하위의 세계를 비교적 자유롭게 넘나들고 있는 점도 우리 소설세계의 특질이라고 하겠다.

IV. 보은형 소설 · 변신소설로서의 <숙향전>

1. 보은형 소설로서의 <숙향전>

<숙향전>은 파블라 곧 인과논리적 순서에 따라 재구할 경우, 앞 장의 도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주인공의 적강 즉 자기 정체성의 상실로부터 시작되지만, 이야기 선 (Story-line) 곧 서술 순서에 따를 것 같으면 거북을 둘러싼 보은담으로부터 시작된다. 즉 장차 숙향의 아버지가 될 김전이 반하에서 어부에게 잡혀 죽음의 위기에 직면한 거북의 목숨을 구해주는 이야기로부터 비롯된다.

이 거북은 이듬해 동정호 백운교에서 홍수를 만나 역시 죽음의 위기에 직면한 愿人 김전의 생명을 구해주며, 한 쌍의 구슬⁴⁹⁾로써 옛날

49) 일찍이 이 <숙향전>을 보은형 소설로 보면서, 이 구슬이 작품 속에서 핵심적 매개체가 되고 있음을 지적한 논문이 있다.

장흥재, <숙향전에 나타난 거북=용의 보은사상>, 《국어국문학》55-57합집(국어국문학회, 1972) pp.441-462

그런데 그는 이것을 다시 가다듬어 발표하는 자리(장흥재, <숙향전>, 《고전소설 연구》; 황폐강교수 정년퇴임기념논문총 간행위, 일지사, 1993)에서 “시혜와 보은의 양상이 주인공의 운명을 개선시키는 일도 없다. 천상에서 지은 죄는 어느 면으로도 소멸되거나 줄어들 수 없다.”(pp.459-460) “인과 관계는 선명하지만 결정이 되고 나면 절대로 바꾸어지지 않는다. 은혜를 배풀고 선행을 쌓아도 마찬가지로 마찬가지일 것이요, 또

에 진 빚을 갚는다. 소설의 서사는 이처럼 김전의 거북에 대한 施恩과 거북의 김전에 대한 報恩으로 펼쳐지고 있다. 流謫者가 이와 같이 이 속계에서 자신의 생애를 속죄의 한 방식인 은혜 베품으로 시작하고 있음은 예사로 보고 예사로 넘길 일이 아니다.

용녀의 화신·변신인 거북이 반하에서 김전에게 보답한 이 구슬은 인연의 고리 혹은 매듭을 엮는 일에, 곧 미래사의 전개에 결정적 구실을 한다. 우선 이 구슬은 옥쟁이(玉匠)의 손을 거쳐 한 쌍의 옥지환으로 만들어져 -반지로 변형되어- 김전과 장씨 부인의 혼인을 성사시키는 일을 한다.·그럼으로써 -납폐물이 됨으로써- 숙향을 낳는 데 절대적으로 기여하고 있다. 한편 이 구슬은 숙향과 선의 결연에도 큰 역할을 하고, 서로 헤어졌던 숙향과 그 부모를 결합 -아버지와 숙향이 부자간임을 확인-시키는 데도 결정적 구실을 한다.

또한 이 거북은, 곧 동해의 용녀는 표진강을 지키는 용왕의 아내가 되어, 표진강 용왕에게 報恩祭를 지낼 때 숙향에게 다시 오리알만한 구슬(156:5)을 주고 있는데, 이 구슬은 선이 선약을 구해오는 데 중대한 기능 -신표 기능- 을 하고, 죽었던 황태후를 살리는 데도 결정적 구실을 하고 있다.⁵⁰⁾

열핏보면 숙향의 삶이 시종 시련과 수난으로만 점철된 듯하나, 자세히 살펴보면 施恩과 報恩으로도 점철되어 있다. 그녀가 온갖 고난을

그러한 행위마저 허용되지 않는다. 숙명을 부여하는 옥황상제도 한번 결정을 내리면 바꿀 수가 없다.”(p.463)고 함으로써, 자신이 1차 독서를 불충실히 했음을 드러내 보이고 있다. 그 결과, 이 보은의 의미조차 誤讀·誤解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50) 仙이 仙藥을 탐색할 때 한 짐승은 이 구슬이 바로 선이 찾고 있는 ‘西海龍王의 開眼珠’(193:끝-194:1)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 한 선관은 이 “옥지환을 몸의 언지면 석은 술이 도로 심”(212:6-7)한다고 말하고 있는데, 작품 말미부분에서 이 구슬은 죽었던 황태후의 살(肉身)을 되살려내는 구실을 하고 있다. 한편 ‘開眼珠’가 황태후의 감긴 눈을 뜨게 하고 있는데, 이 開眼珠와 開眼酒의 대목들 사이에 무언가 빠져 착종이 생긴 것 같다.

무사히 극복하고 있는 것도 어느 모로는 넓게는 부모, 좁게는 아버지의 음덕에 기인한다. 숙향의 삶은 기실 전생에서 이미 규정 선녀의 은혜를 입는 것·받는 것 -규성의 시온→소아(숙향)의 수은-으로부터 시작되었다.⁵¹⁾

한편 이미 앞에서 말했다시피 숙향은 시종 향아의 은덕을 입으면서 살아가고 있다. 그녀의 배필 선을 이 지상계로 보내준 것도 향아이고, 선과 이 속계에서의 짝(인연)을 맺어준 것도 향아이다. 물론 천태산 선녀인 마고할미 또한 숙향을 돕고 있지만, 실은 이 할미 역시 향아의 손으로 遠隔調整되고 있는 존재인 것이다. 숙향의 또 다른 조력자들인 화덕진군이나 후토부인, 날짐승 길짐승까지도 모두 이 향아가 조종하는 존재들임을 감안해 볼 때,⁵²⁾ 저 거북(용녀)이나 거북의 아버지인 용왕 역시 이 향아에 의해서 조정되고 있는 존재들이라고 유추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 이러한 일들이 궁극적으로는 관대한 옥황상제의 통어 내지 윤택 아래 이루어지고 있음은 두말할 나위 없다.

숙향은 다섯살까지는 부모의 은혜를 입고 자라나고, 난리를 만나서는 늙은 적병과 잔나비와 까치(金鵲)(기근 해결) 및 황새(추위 해결)⁵³⁾

51) 규정(뫼날의 장승상 부인)은 숙향이 소아로서 향아-물론 궁극적으로는 옥제-에게 죄를 지었을 때 죽음(죄)을 무릅쓰고 숙향을 옹호해 주다가, 이것이 그만 죄가 되어 이 속계로 격강하였다. II.1.의 두번째 인용문 참조.

52) 날짐승들 가운데 청조는 마고의 화신·변신으로 결국 마고할미 자신이다. 그런데 앞에서 이미 밝힌 바와 같이 이 마고는 기실 향아의 下手人인 것이다.

할미 왈 “나난 천릭손 마고할미러니 월궁 향아의 명을 바다 낭주를 구하러 인간 의 왔더니 저 점계 낭주 꿈의 요지에 기실 제도 니 청묘되어 인도하엿고 낭군 오실 적도 니 숨신산 선관을 다 청하여 오고 옥중의 잇실 적도 니 청묘되어 낭군게 편지 전하코 낭주의 온갖 일을 다 보와습더니...” (pp.124:끝-125:4)

53) 이 짐승들은 후토부인이 보낸 것으로 서술되어 있다. “나는 후토부인입니다. 선녀 인간의 나려와 고승을 적거시리 저 점계 잔나비와 황새며 금죽청묘를 보니여습더니 보신잇가?” (17:1-3)

의 은혜를 입어 살아나고, 명사계에 이르러서는 마고할미와 후토부인의 은덕으로 되살아나고, 표진강에 빠져서는 거북이나 거북의 아버지인 용왕 또는 다른 선녀들의 도움을 받고 재생하며, 노전의 화재를 만나서는 火神인 화덕진군의 은혜를 입어 목숨을 구하고, 그 다음에는 다시 마고를 만나 그녀의 은덕으로 살아가며, 게다가 다시 그녀의 은혜를 받아 선과 짝을 맺기에까지 이른다. 낙양옥에 갇히어 매맞아 죽을 운명에 처하여도 역시 마고의 도움으로 무사히 풀려나기에 이른다.

이와 같이 못 존재들의 은혜를 입은 숙향은 마침내 자신이 그 동안 받아온 은혜를 갚는 일을 시작한다. 마고 할미에게 제문을 지어 그 은공을 기리고,⁵⁴⁾ 화덕진군⁵⁵⁾에게도 제사를 지내주어 그 은덕을 기리며, 용왕에게도 표진강에 가서 제를 지내어 보답하고, 부모에게는 효도를 통해서 그 은공을 갚고, 양부모인 장승상덕 내외에게도 그 은혜를 다시 갚고,⁵⁶⁾ 짐승 -잔나비와 황새 등의 길짐승과 날짐승-들에게도 백미

54) 이 사이에 또 마고가 남기고 간 청삼살개가 이 세상을 하직하자 그 개를 虛葬하고 祭祀 지내주면서 恩德을 갚는 挿話가 끼어 있다.

55) 이 火德眞君은 숙향의 목숨을 구해줄 뿐 아니라, 숙향에게 '은혜' 아닌 '원수'를 베푼 사함을 베풀을 내리쳐 정벌하고 있다. 그런데 이 施怨과 報怨은 저 施恩과 報恩의 逆(-)微表인 바, 이 報怨話素도 報恩話素 속에 수렴된다고 할 수 있다.

56) 俗界의 장승상부인에 대한 報恩은 다른 한편으로는 仙界의 '奎星' 仙女에 대한 보은이기도 하다. 이렇게 볼 때, 이 보은은 同時에 2중의 기능을 수행한다. 이 장승상 부인에 대한 보은은 실상 두번째의 보은이다. 숙향은 일찍이 그녀의 고아 시절, 장승상 부인의 양녀가 됨으로써 첫 보은을 실현했기 때문이다.

(후토)부인 왈 “가실 짚은 너 스스로 지시호려니와 아직 장승상 부인에게 의탁하여 은혜를 먼저 갑부소서.”(20:3-5)

승상과 부인의 꿈의 혼 선녀 구름 속으로 나와 계화 혼 가지를 주며 왈 “내 전칭의 죄 중하여 무조식하게 하여더니 남으게 위미이 잡퍼 설음으로 지니미 이 싯틀 주나니 줄 간슈하라.”(22:7-9)

숙향이 십삼세 되미 명하여 가수를 짓기니 숙향이 승상 양위

삼백석을 풀어 먹임으로써 옛날에 입은 은혜에 사례하고, 이 속계에서 자신의 목숨을 최초로 살려 준 도적에게까지도 그 은혜를 갚고 있는데, 이 오랑캐적에게 보은하는 이야기가 이 소설의 (거의) 마지막을 장식하고 있음이 주목된다.

이와 같은 면에서 볼 때, 이 <숙향전>은 施恩으로 시작해서 報恩으로 끝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시운과 보은은 <숙향전>속에서 이처럼 대칭형 구조를 이루면서 열리고 닫히는 바, 이 작품은 보은형 소설로서도 손색이 없는 -주도 면밀한- 짜임새를 지니고 있다고 하겠다.

2. 변신소설로서의 <숙향전>

<숙향전>에는 변신화소들이 또한 적강화소·기억상실화소·탐색화소·보은화소들 못잖게 수용되어 있다. 주요 등장인물들이 우선 선계의 신선들로서 속계로 적강하고, 다시 本郷으로 昇天(혹은 上天; 謫降에 대한 對概念으로는 昇天, 謫下에 대한 對概念으로는 上天이 어울림)하면서 '선선→인간→선선'이라고 하는 변신과정을 겪고 있다.

천태산의 마고할미는 때로는 靑鳥로, 때로는 술집 노파로, 또 때로는 형체가 안보이는 존재로 자유자재로 변신하고 있고, 화덕진군은 때로는 위엄있는 승려(天僧)로, 또 때로는 짓궂은 노인으로 변신하고 있으며, 龍은 때론 거북으로, 또 때론 신선으로, 또 어떤 때는 童子나 노인으로 변신하고 있다.

이 가운데서 용의 변신 상황만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를 지성으로 섬기며 모든 노비를 은덕으로 부리고 제수를 극진
니 받드니(24:끝-25:2)

그런데 이 숙향의 장승상대 수양녀 노릇은 '전생의 은혜 갚음인 동시에 또 한편으로는 현생의 은혜 입음'이기에, 이것은 양면의 기능·양면의 성격을 지닌다.

숙향이 물 속의 잠괴지 아니하고 거문 판주 갓튼 것시
타고 섯시되 물세 답하여 ...(중략)...그 판주 갓튼 것시 문
득 변하여 고운 계집이 되어 숙향을 안고 비의 오르거날
(38:3-8)

용주 왈 “그난 염여 마르시고 님 등의 중간 오르소서.”
승서 용주 등의 오르니 용주 변하여 황룡이 되어 그 높고
험한 틈을 순식간의 오르니 (206:7-9)

일일은 김전니 형주의 가 좌수를 보고 도라오다가 반야
물가의 다다르니 한 노인니 바회 우의 걸안주 요동치 아
니하니(중략)...한인을 칙하여 물니고 나아가 불시 더욱
거만하거늘...(중략)...김전니 한인에게 분부하여 “쥬춘을
갓초와 오라” 하니, 노인 왈 “한인의 가져온 음식을 먹으
면 한인의 정성이니 한인의 쌀을 찾고져 한나다?” 김전
니 친니 술집의 가 술문 듯 한 바리와 각식 음식을 갓초
와 친니 가져다가 구려(끓어-필자 주)드리니, 노인니 수양
치 아니하고 다 먹은 후의 옷서 왈 “니 술 취하여 말 못
하니 너 다려온 한인은 먼저 보니고 너만 잇다가 듯고져
하거든 니 술 썩도록 지다리라.”하고 잠들거날 김전니 모
든 한인을 보니고 혼주 잇다가 듯고져 하더니 문득 취우
(驟雨)와 평지의 물이 주나 되고 김전니 섯난 티난 물이
억기를 넘무되 중시 요동치 아니하고 섯더니 이윽하여 강
풍이 이러나며 눈니 만니와 김전니 옷시 젖고 물 속의 섯
시되 중시 요동치 아니코 섯더니 그제야 노인니 줄을 썩
여 쇼왈 “너 한난 거동을 보니 정성이 지극하다.”하고 수
미로서 불근 붓체를 니여 붓치니 그 만은 눈니 일시의 업
고 도로혀 여림(여름-필자 주)이 되엿더라. 김전이 다시
절하고 숙향 간 곳을 무르니 노인 왈 “여러 곳딕 가시니
이르기난 하려니와 줄 추주 같난야?” 김전 왈 “아모커나
가라치쇼서.” 노인 왈 “도적이 다려 갓난니라.” 김전 왈
“도적이 다려가도 그제 수랏난잇가?” 노인 왈 “다려다가
유곡역 가온디 바리고 가니 청도와 간치 인도하여 명스게
후토부인니 한 수심을 틈와 남군썩 장승승딕 동산의 두고
가니 그 집이 무주식하여 기룬다 하니 게 가 추주보라.”

김전 왈 “니일이라도 게 가 츠즈 보오릿가?” 노인 왈 “그 후의 드르니 그 집 중 숙향이란 연니 모히^호여 다했(더) 니 숙향이 갈 곳 업서 포진물 용왕으게 갔다 하니 게 가 츠즈보라.”....(중략).... 노인 왈 “그 디 숙향을 어더 보고져 호문 무슴일고?” 김전 왈 “부주지간의 엇지 좃지 아니호 리요? 천행으로 선싱을 만나스오니 덕분의 숙향을 다시 보게 호소서.”노인니 눈섭풀 찡그리며 왈 “숙향을 저리 사랑호면 무슴 일노 반야산 돌틈의 바리고 가며 낙양 옥 중의 갓쳐실 제 엇지 좃지 아니호고 늘근 날다려 괴로이 여러 말 못난야?” 김전 왈 “반야산의 바리고 가문 정의 박호미 아니라 세부득이 바리고 간 일이웁고 낙양옥중의 갓쳐던 숙향은 일흠과 나흔 갓스오나 오티킴 얼굴이 변호 여습고 쏘 제 아버지 일흠을 모르오니 다키 자식인 줄 엇지 알니잇고? 다 불민혼 죄오니 바라건디 분명이 가라치쇼 서.” 그제야 노인이 소왈 “그디 그릇혼 죄 아니요, 호날이 정혼 쉬라. 나난 과연 이 물직킨 용와이러니 저 적게 다키 주식이 거북이 되여 물가의 갓다가 어부으게 잡퍼 거의 죽기 되엇더니 그 디 구호물 입어 스라시미 나도 주식을 위호여 그디 은혜를 갑푸려 호고 승제게 고호고 나려와 숙향 넷날 질을 가라치려 호고 잠간 그디 동정을 보니 그 디 정성이 지극지 못호던들 호마 못볼 번호엿다. 숙향이 다섯번 죽을 익을 지니고 이제는 귀히 되여시니 조만의 형주좌스 부인니 되여 굿씩 서로 만나 보려니와 다맛 숙향의 고승호던 일을 몰나서는 비록 숙향을 만나도 그디 분명이 숙향인 줄 모를 거시니 숙향을 만나 다키 말과 갓거 든 그디 자식인 줄 알나.” (166:10 - 173:10)

용녀가 거북으로 변신해 반하수에서 놀고 있는가 하면, 용자는 선관으로 변신해 남해에서 선을 안내하고 있으며, 그런가 하면 또 다시 黃龍으로 변신하고 있고, 용왕은 또 동자로 화하여 선을 표진강에서 배 태워 노전으로 가도록 도와 주고 있고, 다시 동자나 노인으로 변신하고 있다. 맨 끝의 인용문은 반하의 용왕(동해용왕)이 노인으로 화하여

김전의 자식(숙향)에 대한 愛情度를 시험하는 동시에 과거 자신이 진 빛(입은 은혜)을 갚고 있는 대목인데, 이것은 화덕진군이 역시 노인으 로 변신해 선의 자유의지, 곧 숙향을 향한 愛情度를 시험하고 있는 대 목과 온전히 대응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선에게, 숙향을 한 늙은 外敵이 엮어다 유곡역에 옮겨 놓은 일, 다시 청조와 까치가 나타나 후토부인 궁중으로 인도해 준 일, 흰 사슴이 등에 태워서 남군땅의 장승상덕 동산으로 안내해 준 일, 표 진강의 採蓮女들이 배에 실어 갈대밭으로 옮겨 준 일, 화덕진군이 불 로부터 구해 준 일, 마고할미가 양육해 준 일 등, 숙향에 대한 온갖 정 보가 제공되고, 또 자신(용왕)의 정체 및 과거의 受恩과 현재의 報恩 및 조물주의 섭리 등의 諸情報 역시 제공되고 있음이 주목된다. 이 부 녀 -김전과 숙향- 의 상봉이 이와 같은 정보들 없이는 불가능하거나 무의미하다는 점이 이 인용문의 문맥에 잘 드러나 있다. 이 역시 보은 화소와 긴밀한 상관관계를 지니고 있음은 두말할 나위 없겠다.

한편 선녀들은 때로는 인간(계집애)의 모습을 한 채, 또 때로는 선 녀의 모습 그대로 이 속계에 나타났다가 홀연히 사라지기도 하는데, 가령 김전의 부인 장씨가 숙향을 낳을 때는 인간의 모습으로, 이정의 아내 왕씨가 선을 낳을 때는 선녀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

밤중은 향여 고온 계집⁵⁷⁾ 아히 두리 옥등의 불을 들고
들어와 6:8)...중략 ...그 계집이 향물의 익기를 싣쳐 부인
것터 뉘이고 밧그로 나가거늘 김전니 가난 곳을 보려 향
고 썩라가니 밧서 간 티 업더라.(7:2-4)

57) 이 “고온 계집”도 결국은 선녀를 지칭하는 것이겠으나, 이것은 선을 낳을 때 해 산을 도운 “수양머리한 선녀”라는 표현 -바로 아래 인용대목- 과는 분명히 다른 것이다. 당사자들이 이 助産者를 전자의 경우, 인간의 모습으로, 후자의 경우는 선녀 의 모습으로 수용·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자료들이라고 볼 수 있다.

충맛게 아름다운 소위 나고 수양머리흔 선녀 두리 드리
오며 왈 “찌 느껴 가오니 쥔간 침석의 누우쇼셔.” 하며
옷실 벗기거날 부인니 편니 누우며 인괴를 나오니 옥동주
라. 그 선녀 옥병의 물을 괴우려 인괴를 싹쳐 부인 것킵
뉘이고 ... (중략) ... “우리난 인간 사람이 아니라 천상의 희
산 가을아는 선녀러니 승례의 명을 밋주와” (70:2 - 7)

또한 대성사의 부처는 生佛 그 자체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 묘사
되어 있기도- 하지만, 승려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 변신하기도- 한다.
그는 선의 어머니의 祈禱를 수용해 자식(선)을 점지해 주는 신통력을
발휘하기도 하고, 또 선의 꿈속에 나타나 선을 선계로 안내하기도 한다.
그런가 하면 선계(天台山)에서는 승려로 변신하여 선앞에 나타나 앞길
- 약 버섯(벽이용)을 얻기 위해 마고를 찾아가는 길- 을 안내하고도 있
다.

“나는 중국 병부승서 니선녀러니 황명을 밋주와 별이용
을 구하러 왔습더니 전초로 듯소오니 마고 선녀 보와야
어드리라 하미 촛나이다.” 그 중이 답왈 “이 물을 건너
남티회로 가면 큰 골이 잇슬 거시니 그 골 일흠은 옥포동
이라. 그 골을 추즈가쇼셔,” 승서 왈 “이 물이 집고 다리
업서 건널 슈 업소오니 민망하여이다.” 그 중이 늑환중을
껴지니 변하여 다리 되거날 승서 건너가 그 중으께 치스
하니 그 중이 구름을 타고 올라가며 이르되, “나는 덕성스
부체러니(후략)” (214:4-끝)

부처·선선·동물들만이 變身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위에서 보다시피
물건도 역시 변신하고 있다. 육환장이 다리가 되고, 祭物이 金銀寶貨가
되는가 하면, 술이 화하여 구슬이 되기도 한다. 이와 같은 變身은 기실
신비체험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신비의 세계에서나 가능한 일이다.

부인니 하인으게 분분하여 제물을 갖초와 제홀시 제문의 하여시되 “포진의 나문 몸이 포진의 다시 오니 왕연(往年) 금일의 용왕이 구^하하시더니 금연 또 용왕이 구^하하시도다. 일천 구^하키니를 일조의 당도^하니 산히지은을 난망이로다. 일^하키 청주를 신령지^하의 올니나니 슈룩이 다르오나 미성을 감^하용^하쇼셔.” 독^하필(讀畢)의 물 속으로 오^하식 구름이 이러나 주^하옥^하하시더니 이^하옥^하하여 구름이 거드치며 제물은 한^하낫도 업고 그^하릭의 금은보화 가득^하하며 술잔의 구실이 담겨시되 ... (155:9-156:5)

이러한 일들은 부처나 용왕 같은 神異한 存在들이 자신들이 지니고 있는 神通力을 발휘한 결과로 벌어졌다. 속향과 선의 神秘體驗 - 꿈을 통한 仙界旅行이나 현실 속에서의 선계 여행- 이 가능한 것도 바로 이 신이한 존재들의 神通력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소설 속에서 仙界와 俗界는 바로 지척의 거리에 있게 된다. 아니 맞붙어 있고, 하나로 統合되어 있다. 여기서 이 작품은 가장 古型的, 가장 原型的인 神聖小說이 되는 동시에 또한 變身小說이 될 수 있다.

우리는 이 자리에서 하강과 상승의 테마를 지닌 소설(Romance)들이 보편적으로 變身話素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실을 그대로 지나칠 수 없게 된다.

구조주의자들이 말하듯 모든 구조적 체계가 일련의 변형을 포함하는 것이 사실이라면 변신은 바로 신화 구조의 규범적 변형이다. 타락 또는 하강의 모든 양상은 인간 또는 인간화된 모습이 어떤 동물이나 식물과 연결되거나 일치하는, 어느 정도 형태상의 변화와 연관된다.⁵⁸⁾

우리는 하강을 다루는 서사체에서 중심적 심상이 변신의 심상, 곧 인간적이고 의식적인 어떤 것들이 동물이나 식물 또는 무생물로 변

58) N.Frye, 《俗經》 p.105

하는 것임을 알았다. 상승의 심상은 우리를 하강과 상반되는 성격의 변신으로 안내한다. 그것도 그 동안 무엇으로든지 간에 은폐되었거나 위축되었던 본래의 정체성을 되찾아 가는 것이다.⁵⁹⁾

이 變身은 이처럼 正體性的의 變化와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 본래의 정체성과 이 변화된 정체성 사이에서 本來를 回復하고 本源으로 歸依하는 過程을 다룬 소설이 바로 '정체성 탐색의 소설'인 바, 이 탐색소설과 변신소설 혹은 탐색화소와 변신화소는 처음부터 땄래야 땄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를 지니고 있다고 하겠다.

59) 앞의 책, p.140

V. 사상과 의미

이 <숙향전>은 확실히 착한 일을 한 이는 賞을 받고 악한 일을 한 자는 罰을 받게 마련 -善者必賞 惡者必罰; 積善之家必有餘慶 積惡之家必有餘殃- 이라는 생각, 자기가 쌓은 業에 따라 거기에 상응하는 報酬를 받게 마련이라는 생각-因果應報 思想-을 바탕으로 펼쳐지고 있다. 이와 같은 생각이나 사상은 佛家·道家(仙家)·儒家 모두가 공통적으로 지니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작품에 수용된 적강 화소들이나 보은 화소들은 바로 이 같은 사상과 유기성을 지닌다고 하겠다.

필자는 일찍이 우리의 적강형 소설들이 일반적·보편적으로 무교·유교·불교·도교(선교) 등의 모든 사상이 융합해 이룩된 -죽아 스며든; 습합된- 조선인들의 고유한 사상 내지 신앙(民衆信仰)을 토대로 하고 있음을 밝힌 바 있다.

謫降小説은 天·地·人이라고 하는 三才思想의 낱줄에다가 過去·現在·未來라고 하는 三世意識의 씨줄을 먹여 짜낸 敍事作品이라 할 수 있다. 그러기에 謫降小説에서 <天上界→人間界→天上界>는 곧 <過去→現在→未來>와 짝을 이룬다. 이러한 空間意識과 時間意識이 얹혀 謫降話素를 核으로 하여 엮어내는 敍事文學이 바로 謫降小説이다.

그런데 儒敎는 곧 天·地·人 三才思想을 근간으로 한 思想이요, 佛敎는 三世意識을 근간으로 한 思想이며, 道敎는 民間信仰을 바탕으로, 앞의 儒敎와 佛敎를 절충·종합한 思想이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三才思想과 三世意識을 근간으로 하고 있는 謫降小説 속에는 儒敎와 佛敎와 道敎思想 등이 모두 溶解될 여지가 있다. 그런데 과연 이들 宗教思想이 謫降小説들 속에 함께 녹아 있음을 본다.

天上界만 하더라도 여기에는 玉皇上帝와 부처와 菩薩과

仙官仙女들이 共存하고 있다. 이 경우, 玉皇上帝는 물론 巫敎의 存在이기도 하고, 儒敎의 存在이기도 하며, 道敎의 存在이기도 하다. 이처럼 巫·儒·佛·道의 諸思想이 함께 어울려 있는 世界가 바로 우리 謫降小說의 世界이다.⁶⁰⁾

이 면은 <숙향전>도 똑 같다.

① 숙향이 짓거 청도를 쓰라 한 곳터 다다르니 빅옥연
가온터 구실터를 못고 그 우의 누각을 지어시되 산호 현
관의 금주로 서왕모 집이라 셋거날 그 집이 광치 찰란하
며 엄위하여 바로 보지 못하며 감히 드러가지 못하여 문
밖게서 쥬져하더니, 선관 선녀 학도 타고 혹 봉도 타고
승승이 드러갈 제 치운니 어린 곳의 녀섯 용이 황금 슈릭
를 쓰어 오니 이난 옥대 타신 연일네라. 그 뒤의난 솜뵈
칠성과 모든 선관니 차례로 드러오고, 또 석가여릭 드러
오시난디 제불 천관과 관음 나흔니 시위하여시니 오식 구
름이 어리엿고, 향니 진동하더라. 그 향초 다 지나가되 숙
향을 본체 아니하더니 이윽하여 한 구름이 이러나며 빅옥
교주를 타고 한 선녀 빅연화 한가지를 손의 쥐고 단정이
안 즈스니 좌우의 무슈한 선녀 시위하여거날 이난 월궁향
아려라. (59:7-60:7)...한 보살이 절문 선관을 뒤의 세우고
승에게 뵈온터 (62:끝-63:1) 향아 옥대게 엮조오되 “소인
네 번 죽을 익을 지니스오니 귀주와 복녹을 점지하소서.”
승대 즉시 복두칠성을 명하여 슈한 칠십을 정하고 두 아
달과 한 쫄이며 복녹을 갓초 점지하시되 (63:3-5)

② “티성수 붓체님이 영험하여 무주식한 사람들이 지성
으로 발원하면 혹 주식을 쏜다 하오니 나도 비러볼가 하
나이다.” 승승이 허하거날 부인니 즉시 집의 도라와 지게
하고 예단을 갓초와 티성수 불전의 지성으로 여러 날 축
원하고 도라와더니, 그 날밤 쏜의 한 부체와 이르되 “승
서 형벌이 엄하여 무죄한 빅성을 만나 죽여시미 무주식하

60) 성현경, 적장소설 연구, 《한국소설의 구조와 실상》 pp.162-163.

게 하여더니, 부인의 정성이 지극하되 귀주를 점지하니
 줄 지루라.” 하고 간직 업거날 부인니 솜을 썬여 한날임
 게 익히 축슈하고 승서게 전후스를 저저 설화하니 승서
 드르시고 티경 티히하여 한가지 축슈하고 침석의 조우더
 니 한 절문 선관니 옥호를(玉笏을 -필자 주)취고 내려와
 두 번 절하고 왈 “나는 옥대 압히 잇난 티울선니러니 월
 궁의 득죄하여 닛치시미 갈 곳을 몰나 방황하더니 티성스
 부체 이 덕으로 지시하오미 왔나이다.” 하거날 (68:4-69:5)

③(선니)삼월 망일의 아히종을 다리고 유산 귀경 갔다
 가 티성스의 드러가 두로 귀경하고 난간을 의지하여 호련
 조우더니 비몽간의 부체와 이르되 “오날 서왕모 요지의
 모와 잔치한다 하니 나와 한가지 가 귀경하즈.” 하거날
 (73:2-5)“티성스 부체 니선더러 왈 “저 북편 오운 모든
 탑우의 안주 게신 니난 옥황상메시고 그 뒤의난 칠성이
 모든 별을 지나려 안주시며, 또 동편 황금탑 우의 안주
 게시 니난 월궁항아라, 모든 선녀 시위하고, 서편 옥탑 우
 의 안주 게시 니난 석가여티와(‘석가여티라’의 잘못-필자
 주), 모든 제불 제천니며 관음 나흔니 시위하여시니,니 먼
 저 드러가 안커든 그티 밋조초 드러와 승에게 숙비하고
 세존과 모든 선관으게 차례로 뵈와라.” (73:8-74:3)

인용문 ① ② ③은 특히 仙佛 혹은 道佛의 습합상을 잘 드러내고
 있다. 그러나 청조나 북두칠성과 같은 존재는 巫敎(샤머니즘)적 요소
 61)로도 볼 수 있는 바, 결국 巫道佛 三家의 習合思考를 반영하고 있
 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다.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자식 점지를 ①의
 경우는 북두칠성이 하고 있고, ②의 경우는 부처가 하고 있는 점이다.
 이처럼 칠성과 부처의 기능이 같게 그려진 것이 흥미롭다.

61) 여기서 후토부인·화덕진군·용왕 같은 존재들을 포함시킬 수 있겠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 道와 佛 혹은 巫道佛의 습합 연원은 저 三國時代로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고구려 고분들의 벽화들 및 1993년에 발굴된 백제 향로가 이를
 충분히 뒷받침해 준다.

그런데 여기서 보다 더 흥미롭고 중요한 점은 인간의 복록이나 자식 점지가 이미 前生에 정해진 것 - 生來的으로 결정된 것 - 이 아니라는 점이다. ①에서 보다시피 숙향의 福祿壽限子息 점지는 그녀가 이승에서 4회의 액을 치룬 뒤에 이루어지고 있다. 물론 선녀나 왕균이 事前에는 숙향이 다섯번의 액을 치룬 뒤에라야 선과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다든가, 70의 수한을 누릴 수 있다든가 하는 발언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그들의 뛰어난 혜안 내지神通력으로 숙향의 四柱나 相 혹은 天機를 읽어낸 결과이다. 왕균의 경우는 숙향의 四柱와 相을 통해 운명을 예견한 것일 따름이다. - 전생의 業因(삶)에 따라 현생의 報果(삶)가 마련되었듯이, 다시 현재의 삶에 따라 미래의 삶이 마련되는 것이다. 이 같은 생각은 ②에도 꼭 같이 반영되어 있는 바, 우리는 이 ②를 통해서 다시 작자의 생각을 확인 할 수 있다.

선의 아버지 이 상서는 이 속계에 살면서 지난 날 무죄한 사람을 많이 죽였다. 그 업보로 현재 자식이 없는 것이다. 그러나 그의 현재는 다르다. 그 부인이 지극한 정성으로 자식을 원하고 있기에 대성사 부처가 - 결국 하늘이 - 감동한 것이다. 여기에는 至誠이면 感天이라는 사고가 투영되어 있다. 우리네 인간의 삶은, 이같이 자신의 자유의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다. 하늘이 응답(결정)하는 것이다.

숙향과 선이 이 속계로 적강한 것, 고난의 삶을 사는 것, 마침내 결연하는 것, 이 모두가 다 그네들의 자유의지와 무관하지 않다. 이들의 결합은 상당한 시련을 겪고, 여러차례 정성을 시험 당한 뒤 비로소 이루어지고 있다. 물론 다 하늘의 뜻으로서 하늘이 정한 일이다. 인간의 운명은 하늘이 마련하되, 이 하늘은 인간의 자유의지에 따라 그것을 마련하는 것이다.⁶²⁾ 숙향의 아버지 김전 역시 숙향을 만나기 전 화덕진군의 화신인 노인을 만나 수차례의 시련을 당하는데 - 정성을 시험

당하는데- 이것 역시 앞의 것과 같은 맥락 위에 놓인다. 즉 이 부자 상봉 역시 앞의 부부 상봉과 마찬가지로 자유의지, 곧 정성을 시험 당한 뒤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 <숙향전>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흥미로운 점은 숙향과 선이 이 속계에서 마침내 부부로서 결연·결합하고 있다. 그것도 그냥 결연하는 것이 아니라, 숙향이 선의 제1부인으로 결합하고 있는 점이다. 숙향은 전생에 월궁소아로서 유부남인 태을선군(선)에게 연정을 품고 접근하여 사랑을 이룬 존재다. 선계의, 천상의 질서를 깨뜨린 존재인 것이다. 그 결과, 소아와 선은 이 속계·지상계로 유배왔다. 그러나 그들의 사랑이, 자유의지가 워낙 간곡·간절한 것이기에 항아 혹은 옥제는 이들을 마침내 제1부부로서 결합시켜 주고 있다. 선계에서는 매향(설중매)이 제1부인, 숙향이 제2부인 -혹은 첩- 이었는데, 이 속계에서는 그만 제1·2부인의 위치가 역전되었다. 우리는 이 자리에서 이 작품 속의 다음 문맥을 주목하게 된다.

부인 왈 “부뵈난 천정훈 일이니 인정은 천첩이 업난지라. 황제도 정궁을 폐하고 후궁을 마즈스니 선니 비록 부모 모르기 취쳐하여시나 엇진 연고로 조정의 시비 잇시리요?” 하더라 (119:6-끝)

부인 왈 “부뵈난 천정이라. 위중함이 귀천니 업시리 우리 황제도 선후를 폐하고 후궁으로 원비를 숭아거든 하물며 너 유중하여거날 무죄한 사람을 죽이미 올치 안일가 하노라.” 승서난 본디 축효(‘충효’의 잘못- 필자 주)점전

62) <숙향전>은 이 면에서 인간의 자유의지가 꽤 중시되고 있는 작품으로, 造命論(自由意志論)의이라고 할 수 있다. 필자가 지난 날 이 소설을 宿命論(機械的決定論)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작품쪽으로 분류했던 것은 잘못이다. 주 58)의 책, p.185 참조.

‘조명론’의 개념은 같은 책, p.129 참조.

한 사람이라. 안 마음의 가장 민망하되 누우의 말습이리
거스리지 못하여 “그리하소서.”하고 나와, 신로 난 낙양영
으게 괴별하여 그 계집을 죽이지 말고 근처의 잊지 못하
게 한다. 잊적 황후난 숙부인의 씨누우라. (121:4-9)

남녀 관계·부부 관계, 남녀의 인연·부부의 인연을 天定으로 설명하고있는 이 대목들, 특히 사랑·愛情에는 귀천이 없다고 하는 이 대목들을 눈여겨 볼 일이다. 황제가 자신의 자유의지·애정에 따라 先候·正宮을 폐하고 後宮을 元妃로 맞았듯이, 태을(선) 역시 자신의 자유의지·애정에 따라 원부인인 설중매(매향)를 폐하고 소아(숙향)를 원부인으로 맞을 수 있는 것이다. 숙향이 소아 시절 죄를 무릅쓰고 선(태을)에게 적극적으로 열렬히 사랑을 호소해 왔을 때 선이 그 사랑을 받아들인 것도 다 이러한 문맥 위에서 풀이될 수 있다. 숙향은 과연 선의 원부인(제1부인)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매향이 쫓겨나지 않고 제2부인 자리나마 차지하고 있는 것 역시 그녀의 자유의지와 깊은 관계가 있다. 그녀는 남편과 부모를 따라 自進해서 -즉 자유의지로- 이 속계로 왔을 뿐 아니라, 남편 선이 숙향과 정혼했음에도 선을 끝까지 따를 결심을 하고 행동에 옮겼던 것이다. 그녀는 이 결과 선의 제2부인 자리를 차지할 수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물론 이러한 일들은 다 향아-궁극적으로는 옥제-가 마련한 것이지만, 향아는 이것들을 그저 마련한 것이 아니다. 숙향과 선과 매향의 저와 같은 자유의지들을 존중하고, 그것들을 수용하여 마련한 것이다.

잊적 니션니 취쳐하물 듯고 양왕도 다른 티 구혼하더니
남주 이 일을 알고 부모께 엿주오되, “ ‘츄불스니군니요
열불정니부라’ 하오니 부모 당초의 니션으게 허혼하시고
또 다른 티 구혼하시미 불가하오니, 소녀난 죽어도 다른
티 가지 아니하리니다.” 양왕 왈 “니션니 불빈(‘불민의 잘

못')하여 제 부모 허흔흔 것신 바리고 다른 뒤 취쳐하여 시니 이난 고집할 비 아니라. 어디 니션만한 스람이 업시 리요?" 낭주 두 번 절하고 왈 "부모임이 후스를 전하고 저 허실진디 여러 족하 잇소오니 그 중의 맛당한 니를 갈히여 양주를 정하고 소녀난 업난 것갓치 바려 두오면 종신토록 부모를 모시려니와⁶³⁾ 그러치 아니호오면 스침을 정치 못호오리다." 양왕 부부 할 슈 업서 그 정절을 황제 게 엿주온디 황제 가라스디 "왕의 쫄노서 니션의 돌지 부인니 되면 남의 치쇼를 엿지 면호리요?" 낭주 것딛 안쫄다가 엿주오되 "어른의 말습긋딛 말습하옵기 불가호오나 부모임 전니리 아뢰옵거니와 니션의 돌지 부인은 کن니와 그 집 고공이 되여도 그난 붓그럽지 아니호오되 다른 가문의 가요문 녀주의 절행이 아니오니 셴의 돌지 부인 되기를 원하나다." 왕 왈 "네 쓰지 그러하니 혈마 엿지 호리요." (185:1-186:6)

63) 이 대목은 매우 중요한 것으로 여겨진다. 조선조 중기 숙종 연간(1675-1717)까지만 해도 아들과 딸을 동등시했던 바, 상속에 있어서도 아들·딸 均分相續이었다. 이 굵은 활자 부분은 굳이 조카 양자를 들이지 않고 딸이 그 혈통을 이을 수도 있었던 시대를, 이을 수도 있음을 연상케 한다.

더욱이 이 소설 속에는 "황제도 정궁을 폐하고 후궁을 마즈스니"(119:7), "우리 황제도 선후를 폐하고 후궁으로 원비를 숨아거든"(121:4-5)이라는 구절들이 나오는 바, 위의 인용문 속의 굵은 활자 부분이 새삼 주목되는 것이다.

이러한 구절 내지 문장들을 종합해 볼 때, 이 작품이 선후를 폐출하고 장희빈을 정궁으로 맞은 숙종 연간에 지어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겠다. 또 1754년(영조 30년)에 저술된 柳振漢의 《晩華集》에 이미 이 <숙향전>의 내용이 소재로 수용되어 있을 뿐 아니라, 이 작품이 원초적·원형적인 신성소설이자 적강형 소설인 점 등을 두루 감안해 볼 때 이 작품이 17세기 후반 내지 말엽쯤 탄생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 시기는 <九雲夢>이 나온 시기(1687-1688)다.

이상구, <淑香傳>의 현실적 성격, 《古典文學研究》6 (한국 고전문학연구회, 1991)은 "<숙향전>의 형성연대를 17세기 말에서 18세기 초일 것으로 추정한 曹喜雄의 견해(『國文本 古典小說 形成年代 考究』, 『國民大學 論文集』12, 1978)가 타당하다고 생각된다."고 하면서, 바로 이 이대본의 "황제도 정궁을 폐하고 후궁을 마즈스니"(p.119)라는 구절을 들어, 이것을 "肅宗代의 사회적 현실을 반영하고 있"(p.74, 註16 및 17 참조)는 한 증거로 삼고 있는데, 이 부분은 눈여겨 볼 만한 것으로 여겨진다.

작품을 피상적으로 읽으면 모두가 다 天定인 듯이 보인다. 매향이 선의 제2부인이 된 것 역시 하늘이 미리 마련한 섭리·질서 안의 일인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하늘 -옥제나 항아- 은 존재(人間)개체의 자유 의지를 바탕으로 모든 것을 마련할 뿐이다. 저와 같은 강렬한 매향의 의지가 밀반침되어서 매향의 운명이 결정된 것이다. 하늘은 매향이 남편을 따라 이 속계로 자진 하강할 때 이미 그의 미래 의지까지도 다 읽었던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또 작품을 역시 피상적으로 읽으면 이 소설이 忠臣不事二君·烈不更二夫 같은 忠節·烈節, 곧 보수적인 儒家理念을 옹호하고 있는 것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다. 그러나 실상 이 <숙향전>은 오히려 反儒家的 思想을 더 많이 담고 있다. 빼대 있는 양반집 자녀가 부모에게 알리지도 않은 채 임의로 혼인하는 일, 유부남에게 사랑을 고백하고 결연하는 일 등은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행위들이다. 이런 의미에서 선과 숙향은 되레 시대의 반역아들이다. 이 반역아들의 사랑을 맺어 주기 위해서, 애정을 실현시켜 주기 위해서, 항아와 숙부인 (좌복야 여부인)을 끌어 들이고 있는 작자의 상상력이 매우 놀랍다. 작품은 여부인을 선의 고모이자 양모로 설정하는 한편 황후의 율케로 설정하여, 여부인이 주관한 선과 숙향의 혼사를 기정 사실화·합법화하고, 매향의 아버지인 양왕이 이 혼사에 개입하는 것을 막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는 작품의 치밀한 장치·작가의 뛰어난 구성력을 발견하게 된다.

매향은 역시 절행을 내세워 불효를 저지르고 있는 존재이다. 선 또한 불효자임은 두말할 것 없다. 原罪를 범한 숙향이 시대의 반역아인 점, 항아 또한 반역을 도모한 前科·原罪를 범하고 있는 점은 이미 앞에서 밝힌 바 있다. <숙향전>은 天定論을 펴면서 이를 토대로 하여 이 반역아들의 제행위를 합리화하고 있다.

우리가 <숙향전>을 피상적으로 읽어서 안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작품의 심층구조나 심층적 의미를 올바로 분석·구명해 내지 않고서는 작품의 본질에 접근할 수가 없는 것이다.

<숙향전>은 사실 애정 지상주의 쪽에 서 있다.⁶⁴⁾ 향아는 숙향과 신의 결연-애정실현-을 돕기 위해 시종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인간이 간절히 원할 때, 지극한 정성을 보일 때 마침내 그를 돕는다. 선을 기리고 도우며, 악을 경계하고 미워한다. 그리하여 숙향을 구원하고, 사향을 죽이고 있다.

무엇보다도 재미있는 것·흥미로운 것은 淑香의 애정 표현을 끝내 惡으로 보지 않고 있는 점이다. 옥제가 처음에는 벌을 내렸으나, 마침내 규성 선녀 및 향아의 주청을 수용하여 仙과의 인연을 맺어 주고 있는 점이다. 실상 조선조의 작가(소설가)들은 대체로 시대의 반역자들이다.

64) <숙향전>은 그런 만큼 남녀간의 사랑을 중시하고, 이 사랑의 結實過程을 그린 소설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사랑의 서술이나 묘사가 직설적·노골적이지 않고 우회적·상징적이며, 옥제적이지 않고 정신적이라는 점이 특징할 만하다.

(승녀) 소익을 명혹스 “반도 두 기와 개화 훈 가지를 킵을을 주랴.” 향시거날, 소익 명을 맞추와 마지 못하여 훈 손의 반도를 옥반의 남아 들고 개화를 꺾고 킵을을 주니 그 선관니 두 손으로 바드며 이윽히 소익을 눈 주어 보거날, 소익 그 모든 중의 붓그러워 몸을 도로힐 제 숙향의 뉘 옥지환의 진주 찔러지거날 숙향이 죽고져 호더니 그 선관니 밭서 손의 꺾어거날 숙향이 붓그러오를 익이지 못하여 전의 오르고져 호더니 (63:6-64:2)

이 대목은 숙향이 마고의 안내로 꿈 속에서 요지를 구경하는 -神秘體驗하는- 장면을 그린 것인데, 仙 또한 대성사 부처의 안내로 역시 꿈 속에서 숙향과 꼭 같은 이 신비체험을 하고 있다.(74-75면) 여기에도 인용문과 상사한 대목이 있다. 이때, 이 桂花는 숙향을 상징하고 -숙향이 잉태될 때 하늘에서 桂花가 떨어졌음-, 반도는 사랑을 상징하며, 옥지환은 女性 내지 女性 性器를, 진주는 정조를 은유 내지 상징한다고 받아들일 수도 있겠다. 그러나 이 <숙향전>에는 옥제적 접촉이나 즐거움을 표현한 어휘 혹은 구절이 한군데도 안 나오고 있다. ‘雲雨之樂’과 같은 어휘를 어느 구석에서도 발견할 수가 없다.

한편 여기서 또 특징할 것은 이 ‘眞珠’를 선이 現實의으로 소유(75면)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것이 바로 仙과 俗, 꿈과 현실이 하나로 統合되어 있는 <숙향전>세계의 특질이자 실상이다.

儒家理念에 충실한 이들은 소설을 쓰지 않았다. 짓는 것은 그만 두고 읽는 것조차 폄시하던 시대가 바로 이 조선조 시대가 아니던가. 仙을 좋아하는 이들·反儒家들·체제에 비판적인 이들이 소설 창작에 힘썼음은 필자가 이미 다른 논문⁶⁵⁾에서 지적한 바 있다. 특히 적강형 소설의 작가들 -<숙향전>의 작자 포함- 은 이처럼 仙·佛의 세계를 좋아하고, 이 세계를 작품에 끌어들일 뿐 아니라, “현실세계·인간세계 안에서의 男女間의 自由스런 만남과 交際를 天定因緣으로 치부하여 이를 合理化하고 즐겨 다루는 한편, 자기의 獨立意志에 입각한 이 自由戀愛야말로 세상사 가운데서 가장 아름다운 일이고, 인생사 가운데서 가장 중대한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은연중에 내비치고 있”⁶⁶⁾기까지 한 바, 어떤 면에서는 반역자 중의 반역자라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우리가 <숙향전>에서 주목하게 되는 것은 이 소설의 다른 소설들과의 관련 양상이다. 그 중에서도 특히 <춘향전> 및 <심청전>과의 관계이다. <춘향전>이나 <심청전>에는 <숙향전>과 소재상으로 유사한 것들이 꽤 수용되어 있다.

우선 <춘향전>과 유사한 소재들 내지 대목들부터 살펴보기로 한다.

① 청도 나라와 니랑의 무릅 우의 안주 울거날 고이하여 주세 보니 다리의 집 쓴 된 것시 뵈거날 끝너 보니 낭주의 편지라. 하여시되, “전칭 죄악은 이 상외도 면키 어렵도다. 조흔 인연니 일야간의 변하여 모진 광풍의 찌러졌도다. 향기로온 이 니 몸이 속절업시 낙양 옥중의 홀키 되리로다. 죽기난 설지 아니 흥거니와 부모와 낭군의 열

65) 성현경, 李朝 謫降小說과 宗教思想 -作者 및 讀者와 관련하여, 《東洋文化》20·21합집(영남대 동양문화연구소, 1981) pp.97-111 참조.

66) 성현경, 《한국소설의 구조와 실상》 p.32.

꿈을 다시 못보고 죽난 숙향은 지향의 가도 눈을 감지 못
하리로다. 바티나니 어엽분 숙향의 신체나 추주 조흔 산
중의 무더 주음소서.”(113:8-114:4)

② 잇튼날 김전니 니청 좌기향고 “숙향을 올니라.”(115:5-7)
잇찌 남주 옥갓탄 두 귀밧티 호르나니 눈물이라. 연연 약
질이 큰 칼을 쓰고 여러 스람으게 붓들여 가니 반은 죽은
스람이라.(115:5-7)

③ 각설 김전은 계양으로 가고 신관니 나려와 숙향을
잡아드려 왈 “네 본티 미천한 스람으로 승서되 귀공주를
침혹하게 하니 맛당이 죽일 거시로되”(123:4-5)

④ 황제 전일 숙향의 일을 들어 계신지라. 선의 승소를
보시고 즉시 형부의 전교하수 “계집의 절행은 비록 옛 스
람이라도 밋지 못할 거시니 특별이 정열부인을 봉하라.”
하시니(148:10-149:2)

⑤ 잇찌 니선니 취쳐하물 듯고 양왕도 다른 티 구흔하
더니 남주 이 일을 알고 부모게 엿주오되 “측불스니군니
요 열불경니부라 하오니 ...”(185:1-3)

⑥ 승서 왈 “이 번 거름이 도라올 기약 망연하오니 저
충전의 동킵나무 입풀 표하나니 입피 누르거든 병든 줄
알고 입피 찢러지거든 죽은 줄 알고 전과 갓치 충충하거
든 무스이 도라오난 줄 아옵쇼셔.” 부인 왈 “첩도 신물을
표하리다.” 하고 옥지환 한 썩을 주며 왈 “이 지환 빗치
누르거든 병든 줄 아옵고 검거든 죽은 줄 알고 전과 갓치
빅빅 하거든 무스한 줄 아옵쇼셔.”(191:9-192:4)

인용문①②③은 낙양 옥중에 갇혀 있는 숙향에 관해 서술 내지 묘
사한 글들이다. 낙양 옥중의 숙향과 남원 옥중의 춘향은 유사한 데가
많다. ①은 숙향이 옥 안에서 옥 밖(낙양:서울)에 있는 이도령(仙)에게

창조를 통해 전한 편지 내용인데, 이것은 춘향이 옥 안에서 옥 밖(한양:서울)에 있는 이도령(몽룡)에게 방자를 통해 전한 편지 내용을 연상케 한다. 또 ②는 큰 칼을 쓰고 있는 남원 옥중의 춘향을 연상케 하고, ③은 변부사가 신관으로 내려와 춘향을 잡아 올려 物故하는 장면을 연상케 하고 있다.

인용문 ④⑤⑥ 역시 <춘향전>을 연상케 한다. ④의 숙향의 절행을 높이 사 그녀를 貞烈夫人으로 봉하는 대목, ⑤의 “忠不事二君, 烈不更二夫”라는 구절, ⑥의 숙향과 선의 信標交換 대목은 매우 낯익은 것들이다. ⑥은 특히 <春香傳> (南原古詞)가운데 나오는 信標로서의 대나무와 옥지환을 연상케하고 있다.

그런가 하면 <숙향전>에는 <沈淸傳>과도 소재상 유사한 것들이 많다. 소재상만이 아니다. 구조상으로도 우선 유사하다. <심청전>의 경우, 주인공 심청은 저 천상계 선계에서 神物을 私取한 -神酒를 축낸- 죄로 이 지상계·속계로 유배와 갖은 苦痛·試鍊의 삶을 산 뒤 물(인단소)에 빠져 용궁을 구경하고, 거기서 자기의 과거사를 들음으로써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물로써 죄지은 몸을 淨化한 뒤 재생, 마침내 유리국왕의 아내가 되어 자식들을 낳고 영화를 누리고 나서는 본래의 세계인 천상계·선계로 귀환하고 있는데,⁶⁷⁾ 숙향 역시 이와 유사한 역정을 밟고 있다.

적강 화소·정체성 화소·탐색화소·기억상실 화소·정화 화소가 두루 수용되어 있는 점, 용궁에서 回示와 豫示가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는 점, 神秘體驗을 하고 있는 점 등에서 두 소설은 상통한다. 두 작품은 이처럼 적강형 소설·탐색형 소설이란 점에서 일치할 뿐 아니라, 보은형 소설이란 점에서도 일치한다. 특히 大英博物館 소장 A본 <沈淸

67) 성현경, 성년식 소설로서의 沈淸傳, 《西江語文》3(서강어문학회, 1983)

傳>의 경우, 보은 화소들이 많이 수용되어 있는데, 따라서 심청의 보은담들이 (후반부의 후반에 집중적으로) 많이 수용 -서술·묘사- 되어 있는데,⁶⁸⁾ 이 역시 주목된다. 또 얼마간의 변신화소도 발견되는 바 이 면에서도 두 소설은 유사하다. 즉 보은형 소설·변신소설이라는 점에서 <숙향전>과 <심청전>은 일치한다고 하겠다.

다음은 이 이외에 또 <심청전>과 부분적으로 유사한 대목(소재)들을 모은 것이다.

①(숙향이) 가난 길 압히 큰 물이 잇거날 그 물의 썩져 죽고져 하여 허날게 포박하고 왈 “숙향은 전심죄 중하고 부모를 일직 여히우고 정처업시 단니다가 천형으로 장승 승덕의 의지하여습더니 익명을 입고 이 물의 썩져 죽스오니 천지 일월 성신은 어엽비 네괴소서.” 실피 통곡하니 수운니 춤담하고 비풍이 습습하며 초목이 실허한 듯하며 형인도 눈물 아니 흘니리 업더라. 허난 찌러져 서산의 넘어가고 골식난 물가의 실피 우니 숙향이 더욱 서른 회포를 익이지 못하여 흥습을 부여잡고 방황하다가 물의 썩여 드니 질 가난 사람이 구하려 하되 물결이 흉용한디 숙향이 물 속의 잠기지 아니하고 거문 판주 갇튼 것실 타고 쏜시되 물 세 급하여 드러가 구치 못할네라. 잇쥬 었던 개집 아히 둘러 연엽쥬를 타고 빗비 저어 와 이라되 “용녀난 우리 부인을 모시고 비예 오르소서.”(37:6-38:7)

② “니가 과연 숙향이웁더니 너 갈 썩 신 글을 보신잇가?” 승승 부인니 놀나 괴절하였다가 재우 인스를 추려 왈 “니 쫓 숙향아! 나는 너를 죽은가 하여더니 오날날 서로 불 줄 었지 아리시리요.” 목을 안고 구울며 일히 일비한 양을 었지 다 충양하리요. 승승이 또한 이 말을 듣고 급히 드러와 붓들고 왈 “이것시 춤이나, 쏘이나? 춤

68) 성현경, 문장체 소설 판각본 沈清傳 고종 -경판 24장본과 26장본의 위상 및 관계-, <石靜 李承旭先生 回甲紀念論叢>(원일사, 1991) pp.530-532 참조.

니 쫄 숙향인다? ”하고 통곡하니 (163:4-10)

③ 그제야 교위의 내려 두 번 절하고 왈 “니가 숙향이로쇼이다.”(180:7-8)...“어만님은 정신을 진정하시여.” 중시 그제야 정신을 차려 왈 “내가 일정 숙향인다? 죽어 혼이 온가, 스라 녹신이 온가? 아마도 썸인가 호노라.”(180:끝-181:2)

④ 만조 빅관과 열후 공경이며 습천 시녀 위의를 갖초와 나오니 그 중헌 거동을 엿지 충양하시요. 황제 즉일의 정열부인(숙향-필자 주)으로 정열 왕비를 봉하시고 (224:5-8)...정열 왕비난 니남 일너를 뿌어시니 중주는 병부상서 되고 충주는 퇴중군니 되고 쫄은 퇴주비 되고 (224:10-끝)

인용문 ①은 심청이 인단소에 투신하는 대목, ②와③은 심봉사와 청이 해후하는 대목, ④는 심청이 유리국 왕후가 되어 자녀들-3남2녀-을 낳아 부귀를 누리는 대목을 연상케 한다.

한편 유리국·남군땅·규성 같은 나라·고을·별(신선)이름들이 두 소설에 똑 같이 나타나는 것도 예사로 넘길 일이 아니다. 장승상 부인도 주목해 볼 수 있겠으나, 원 <심청전>-경판본 계열-에는 이 ‘장승상 부인’이 안 나타나므로 이는 문제 밖으로 본다. 다만 이 경우 후대의 변모본인 판소리 사설 내지 판소리체 소설과의 관계는 다소 얘기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우리는 이상에서 <숙향전>과 <춘향전>, <숙향전>과 <심청전>의 近似한 점들을 지적하였다. 그런데 필자는 서론에서 이 <숙향전>이 아주 이른 시기 -17세기 후엽 내지 말엽쯤-에 지어져 <춘향전>의 형성에 얼마간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보았다. 그런데 <심청전>의 경우는 소재상으로만 유사하지 않고 구조상으로도 꽤 유사하다. 어느 한

쪽이 다른 쪽으로부터 상당히 빛을 진 것으로 여겨지는데, 아마도 <숙향전>이 <심청전>에 영향을 미쳤을 듯하다. 그러나, 이것이 아직 추정이요 가설에 불과함은 두말할 나위 없다.

한편 <숙향전>과 <심청전>이 비록 구조나 소재상 꽤 유사한 면을 지니고 있을지라도 그 구조나 소재가 서로 같은 것은 아니며, 더욱이 그 소설의 의미나 주제는 전혀 다른 것이라는 점 역시 두말할 필요 없겠다. 아무튼 <숙향전>은 이처럼 후대의 소설들 -특히 적강형 소설·탐색형 소설·보은형 소설·변신소설들-의 형성 내지 전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면에서도 그 의미 또는 의의 -문학사적·소설사적-를 지니다고 하겠다.

VI. 맺음말

이상에서 논의한 것들 가운데 요점만을 간추려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이것을 결론으로 삼는다.

<숙향전>의 밑바탕에는 '하늘이 정한 것은 피할 수 없다. 그런데 하늘은 公平無私하다. 그러므로 우리네 인간들이 현재 고통을 당하고 시련을 겪는 것은 모두 自業自得이요, 自作之孽이다.' - 이와 같은 생각이 깔려 있다.

사향이 천벌을 받아 죽는 것, 이선의 아버지가 처음에 자식이 없이 고통을 겪는 것, 죄를 짓지 않은 채 스스로 하강한 매향(설중매)이 귀한 존재로 태어나 고통없이 사는 것 등도 다 이러한 맥락 위에서 이해된다.

그런데 숙향의 시련만은 묘한 구석이 있다. 그녀가 이 지상계·속계에서 그토록 극심한 고통을 받는 것은 분명히 저 천상계·선계에서 큰 죄 - 神物 私取罪·任意 結緣罪 - 를 지은 결과다. 그러나 하늘은 그녀에게 이와 같은 심한 고통을 겪게 한 뒤에는 마침내 그 소원·사랑·을 성취시켜 주고 있기에, 사랑·異性間의 愛情 - 에 관해서만은 꼭 관대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하기에 묘한 구석이 있다는 것이다.

옥제 혹은 항아가 이 범죄자를 옹호한 규성선녀(장승상부인)를 징벌하는 한편 이 범죄자를 미워하는 것이 당연한 듯한 능허선(부부)까지도 징벌하면서도, 끝내 숙향 - 숙향의 사랑의 성취 - 을 돕고 있는 점이 무척 흥미롭다. 뿐 아니다. 이 작품 속에는 愛情에는 妻妾 혹은 貴賤이 없단가, 우리 황제가 그러했듯이 본부인을 내치고 새 부인을 정실로 맞이할 수도 있단가 하는 문맥까지 등장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가 異性을 진실로 원할 때, 진정으로 사랑할 때는 그 所願의 試圖, 사랑의 企圖는 해봄직하다는 암시가 들어 있다고 볼 수 있겠다. 다만 이 사랑에 장애 요인이 있을 경우, 그 요인이 크면 클수록 그만큼 큰 시련이 뒤따를수 있다는 것. 그러나 至誠이면 感天인지라, 문제는 곧 그 지극한 정성·굳건한 자유의지라는 시사가 들어 있다. 한편 求愛는 여성이 먼저 할 수도 있다는 생각, 유부남에게 조차도 할 수 있다는 思考 또한 작품 속에 잠재되어 있다.

인간의 죄와 벌·탐색·施恩과 報恩·施怨과 報怨·사랑과 미움·통과의례·출생·성장·혼인·출세·죽음 - 신비체험 등을 두루 다루고 있는 소설이 바로 이 <숙향전>이다. 그래서 이 작품은 적강형·탐색형·보은형 등이 중첩된 복합형 소설이 된다. 한편 여기에 그치지 않고 변신 소설이라는 성격이 하나 더 첨가된다, 그러나 보은형 소설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부차적인 성격이고, 변신소설은 더 더욱 부차적인 것이다. 근본적으로는 적강형 소설이면서 동시에 탐색형 소설이 된다.

그렇다면 주인공이 왜 적강하여 試鍊의 삶 贖罪의 삶을 사는가, 무엇을 탐색하고 있는가가 중요하다고 하겠다. 숙향은 小娥란 仙女로서 저 선계의 율법을 어기고 질서를 깨뜨렸다. 자기 임의로, 자유의지로 異性을 사랑하고 因緣을 맺었다. 그리하여 자기의 본래 신분·정체를 상실하고, 이 속계로 적강한 것이다. 그러나 숙향은 이 속계에서 유배의 삶을 살면서 그 동안 잊거나 잃어버린 지난 날의 자신의 욕망·정체를 발견 내지 확인한다. 그리하여 마침내 자기의 정체성을 되찾는다. 선의 삶 역시 숙향의 삶과 비슷하나, 숙향의 그것에 대해 부차적·종속적이란 차이가 있다.

또한 여기서 특기할 만한 것은 이 작품이 사랑을 다루되, 이것을 육체적·직설적·노골적으로 다루지 않고, 정신적·은유적·상징적으로 다루고 있는 점이다. <숙향전>은 이만큼 고답적·고차원적인 작품이다. 그 고답성·고차원성은 이 소설이 神秘의 世界, 巫·道·佛의 세계와 맞닿아 있는 데서도 읽을 수 있다.

한편 <숙향전>은 적강 화소·기억상실 화소·탐색 화소·정체성 화소·보은 화소·변신 화소 등 여러 화소들을 수용하고 있는 소설로서, 적강형 소설·탐색형 소설·보은형 소설·변신 소설 등의 원형이자 전형이란 면에서 소설사적인 의의를 지닌다. 이 작품은 이른 시기-17세기 말엽쯤-에 창작되어 뒷날 이어지는 문장체 소설들에 대해 큰 영향을 미쳤을 뿐 아니라, 판소리체 소설들에 대해서도 얼마간 영향을 미쳤는데, 특히 문장체 소설 및 판소리체 소설 <심청전>과의 영향 수수관계가 가장 큰 미친 것으로 보인다. <춘향전> 혹은 <춘향가>에 대해서도 소재적인 면에서 약간의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본고가 여기서 미처 다루지 못한 부분과 잘못 다룬 부분은 뒷날 보완되기를 기대한다.